

K D I

K D 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DI 북한경제리뷰

2006. 1

KDI 북한경제리뷰

2006년 1월호

발행 / 2006년 1월 25일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발행인 / 한국개발연구원장 한정택
편집위원 / 고일동, 조동호, 김상기
김상훈, 김은영

(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205
fax: 02-967-0186
<http://www.kdi.re.kr>
e-mail: ksklyh@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차 례

동향과 분석

2006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분석 (김상기) / 3

경제자료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2001~2006) / 19

2005년도 김정일위원장의 경제부문 현지도 / 30

2006년 UNICEF 인도지원활동: 북한 / 41

부문별 주요동향 (12.25~1.24)

1. 대내경제 / 49
2. 농업 및 식량 / 61
3. 대외경제 / 64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68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78

동향과 분석

2006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분석

김상기(KDI 북한경제팀장)

ksklyh@kdi.re.kr

2006년 1월 1일 북한은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에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과거 신년공동사설에 비해 선동적이지 않고 간결한 제목의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올해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로 설정하였다. 경제부문과 관련해서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2005년도를 ‘경제건설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에 해 놓은 일보다 다 큰 성과를 이룩한 해’로 높게 평가하고, 국방공업의 우선적 보장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을 올해의 경제 목표로 제시하였다.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에서는 전년도 경제성과와 올해 추진해야 할 경제목표, 경제와 관련된 주요방침 그리고 경제부문별 과제가 제시된다. 그리고 경제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과제도 세부적으로 열거된다. 따라서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경제전략의 공식적인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신년공동사설은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과제들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연도별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을 비교할 경우 경제정책의 흐름과 그 변화내용을 알 수 있어 북한의 경제정책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

금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의 경우에 새로운 경제정책의 제시는 없었다. 경제부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작년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²⁾.

-
- 1)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자료로는 매년 1월 1일 발표되는 신년공동사설,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는 전년 및 당해연도 과제와 예·결산, 당창건일, 정권수립일, 당 대회 등 주요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발표되는 당 구호 등이 있다. 북한은 2005년 7월 2일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하여 당 구호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부문 당 구호에 대해서는 『KDI 북한경제리뷰』, 2005. 7. 참조
 - 2) 2005년도와 2006년도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 비교는 <별첨> 참조

경제부문과 관련한 올 신년공동사설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에 따른 국방공업의 중시, 농업의 주공전선 지속, 인민경제의 개건 현대화, 경제관리제도의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노선, 경제전략, 역점사업 분야 등은 올해 새롭게 제시, 부각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추진해 온 내용들이다. 이하에서는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분석, 평가하고 북한의 금년도 경제정책을 간략히 전망하고자 한다.

<2006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주요 내용>

1)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 국방공업의 선차론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은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으로 집약된다.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김정일위원장이 2002년 9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의 방향을 제시한데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이후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국방공업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고,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이라는 언급과 함께 국방공업의 발전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 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국방사업은 강성대국건설의 제일 중대사'로 제시하면서 2005년 신년공동사설과 동일한 표현으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방공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 국방공업의 발전을 보장하게 되면 당의 선군정치를 물질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킴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주민생활을 높인다는 것이다. 2005년과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목표로서 제시된 '국방공업에 대한 최우선 보장',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경제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을 1998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양 노선은 구별되는 별개의 노선이 아니고 또한 새로운 노선이 기존노선을 배제하고 있는

3) "국방공업의 선행, 대를 이어 계승된 원칙", 『조선신보』, 2003. 4.11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논리를 북한은 중공업과 국방공업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중공업은 국방공업의 기초로 중공업의 발전이 없으면 국방공업의 발전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추구할 경우 중공업의 빠른 발전을 결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방공업의 발전은 우선 중공업부 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중공업 생산물에 대한 많은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중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공업과 국방공업과의 이러한 관련성에서 볼 때 중공업은 곧 국방공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⁴⁾. 다만 과거에는 국가의 경제토대를 중공업으로 보았지만 현재의 선군시대에서는 국방공업을 주도적인 지위로 설정하고 중공업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논조에서 볼 때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이라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을 선군시대라는 정치사상적 슬로건에 걸맞게 중공업을 국방공업으로 대체시킨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중공업 대신에 국방공업을 강조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군사적인 '強性'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내적으로는 내부결속을 다지면서 국방공업, 나아가 기존의 중공업정책을 더욱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처럼 국방공업과 중공업이 상당한 유사성 내지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연관성이 크다 해도 국방공업의 선차론과 중공업의 선차론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방공업의 선차론은 바로 군수생산 부문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군수공업은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사용가능한 2중용도의 생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무기류, 군사장비 등 군사적 목적에만 쓰이는 물자를 생산하는 부문을 말한다. 따라서 중공업 대신 국방공업으로 우선순위를 대체했다는 것은 자원배분이 군사목적의 생산품에 우선된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존의 중공업 및 농업, 경공업 생산에 제약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 자원부족에 허덕이는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

앞으로도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계속 강조되는 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인 국방공업의 우선 그리고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발전이라는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북한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균형적 성장에 상당한 제약을 줄 것

4)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 『경제연구』, 2003. 2. p.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 김형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독창성』, 『경제연구』, 2004. 4. p.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6) 북한의 경우 국가예산지출에서 국방비가 점하는 비율은 2002년 14.9%, 2003년 15.7%, 2004년 15.6% 그리고 2005년(예산기준)에는 1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으로 보인다.

(2) 농업의 주공전선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농업분야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은 식량사정이 심각했던 1998년과 1999년에 농업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농업생산의 증대를 독려했지만⁷⁾ 2000년에 들어서부터는 농업부문보다는 생산의 정상화라는 목표 하에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 북한은 여전히 부족하긴 해도 식량사정이 호전되어 가는 상황에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지정해 농업생산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WFP/FAO는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첫해인 2004/2005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지난 해보다 약 3% 증가한 423.5만톤(정곡기준)으로 추계하고 이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최대생산량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북한의 2005/2006년 식량생산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은 지난 해(431만톤) 보다 5.3% 늘어난 454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이러한 생산규모는 최소영양섭취기준의 75% 적용시 북한에서 필요한 식량규모인 약 510만톤에 비해 50만톤 정도가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규모는 1999/2000년 양곡연도 생산량 342만톤(WFP/FAO 추계)보다 100만톤 정도가 증가한 수치이다.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긴 해도 식량생산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농업생산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인민생활의 향상이나 결정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량문제, 먹는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이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의 증대는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기본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업생산물은 경공업분야의 생산활동에서 필수적인 생산요소가 되기 때문에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주민소비품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⁹⁾.

7)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211고지이다’, 1999년에는 ‘농업생산은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라는 표현으로 농업생산 증대를 독려했다.

8) 매년 11월에 발표되는 FAO/WFP의 북한식량생산량은 2005년도의 경우 북한이 WFP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평가단의 입북을 거부함에 따라 추계되지 않았다.

9) 장명호, “농업전선은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 『로동신문』, 2005. 1.12. 이밖에 농업의 발전은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노동자와 농민,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중요원칙을 관철할 수 있다는 것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국방공업

북한이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선정한 이유는 북한 당국이 설명하는 농업부문이 갖고 있는 특성 외에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2004년부터 국제기구 등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거부사를 밝힌 바 있고 2005년에 들어서 국제기구나 국제 NGO에 대해 구호활동을 중지하고 대북지원을 식량지원이 아니라 개발지원형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당규모의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990년대 중반 기근에 따른 체제불안을 다시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식량공급소를 통해 식량을 전국적으로 정상공급하고 종합시장에서 곡물거래를 중지시킨 조치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식량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2005년 11월말 WFP 긴급구호보고서에 따르면 WFP가 식량공급소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1일 1인 500g 목표치보다 훨씬 적은 양을 지급받고 있었고 곡물의 시장거래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량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식량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¹¹⁾.

북한이 배급제를 정상화한 것은 모든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쌀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가격들을 안정시킬 수 있고 국가에서 쌀을 국정가격으로 구매, 판매함으로써 재정수입의 확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²⁾. 또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식량가격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식량배급을 통해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선군시대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선의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2005. 4. pp.15-16.

10) 김성철 수매양정성 처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2005. 10.31)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 2002년의 시점에서 70%의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던 것이 올해 가을부터는 모든 주민들에게 ‘기준량의 보름 몫’을 정확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식량의 정상적인 공급은 수도 평양뿐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지역적 편차는 없다.-----식량공급이 정상화된 종합시장에서도 쌀 판매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WFP Emergency Report" No. 48. 2005. 11.25

1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서는 쌀의 구매가격은 kg당 80전에서 40원으로, 판매가격은 8전에서 44원으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7.1조치 이전에는 국가배급은 바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졌지만 7.1조치 이후의 제도에서는 국가수매는 kg 당 4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13) 김성철 수매양정성 처장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직장을 결근 없이 다니는 노동자, 사무원들이 기준량을 다 살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분배원칙이다. 식량공급이 정상화된 10월 이후 이 원칙은 보다 철저히 관철하게 되었다.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우대하는 원칙에서 식량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조선신보』, 2005. 10.31

따라서 배급제도의 정상화¹⁴⁾는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물론 체제의 안정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게 있어 식량생산 증대에 따른 배급제도의 정상적인 유지는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올해에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이유의 하나로 판단된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농업과제는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2006년에 열거되고 있는 과제로는 농업부문에 대한 인적, 물적자원의 최우선 배분, 농촌지도기관의 책임강조 및 농촌에 대한 적극적 지원, 당의 농업혁명 방침인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의 철저한 관철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기계화, 화학화 등 농업의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자원의 최우선 배분, 농촌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은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데 따라 제시된 과업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과제들은 새롭게 제시된 과제라기보다는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어 온 과제들이다.

다만 농업부문의 동향과 관련해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2003년부터 과학농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학농업은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적용한 합리적인 영농공정을 생산현장에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가면서 그 성과를 기초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식량생산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는 과학농업을 전국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3) 경제의 개건현대화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를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제시하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새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중요하고 실리가 있는 대상부터 하나하나씩 실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⁶⁾.

14) 식량배급의 정상화 조치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방향과는 역행한다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번 조치의 계기가 7.1조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조선신보』, 2005. 10.31). 이것은 7.1조치가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상통되는 것이기도 하다.

15) “적지적작, 적기적작이 증산의 열쇠: 농업과학원 농업정보기술센터 박광철소장에게서 듣다.” 『조선신보』, 2005. 12.2

16) 한편 2005년 7월 2일 발표된 당 구호에서 개건현대화와 관련된 구호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를 담당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밀고 나가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개건현대화하는 방법으로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높여 나가자'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 구호는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것과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뿐 동

2005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과학기술 중시측면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 있게 다그쳐야 한다’는 표현으로 이를 제시하였지만 올해는 개건현대화를 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중요한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는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중시노선이 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 추진되고 있는 과제이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제시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인 기술로 갱신하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매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개건현대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연도별 신년공동사설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개건현대화를 중심과업으로 설정해 제시하느냐 아니면 과학기술중시노선의 한 과제로 제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¹⁷⁾.

북한이 개건현대화를 경제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생산설비와 공정을 첨단 기술로 개건함으로써 제품의 질은 물론 원가를 낮추는 경제효율의 도모로 생산기반의 정상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개건현대화의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첨단기술 설비의 도입과 교체만이 아니라 기존 설비의 보수, 정비를 통해 생산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 측면이 더욱 강하게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낙후되고 폐휴된 북한의 생산시설을 모두 갱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는 2005년 4월에 향후 몇 년간 추진할 공장, 기업소의 개건현대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획위원회 윤광웅 국장은 현대화계획의 시행방법과 관련 “모든 부문에서 자금과 외화보장성을 고려해 자체 투자 또는 국가투자대상을 나누고 있고 실리가 나지 않거나 유사한 생산부문의 공장을 전문화원칙에 따라 공정별로 정리, 통합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하고 ▲ 긴급하고 실리있는 대상부터 골라 하나가 열, 열이 백을 현대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설비, 공정을 바꾸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고 ▲ 북한의 자원, 경제토대, 힘, 기술에 의거해 북한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개건현대화의 원칙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⁸⁾. 이러한 원칙 외에도 개건현대화방법으로 생산부문에 대한 우선투자, 대외과학 교류기술 확대 등 선진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등도 제기되고 있다¹⁹⁾.

일한 내용이다.

17) 다만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기술개건내용이 경제부문 중심과업에서 빠지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야 한다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강조하였다.

18) 『조선신보』, 인터넷판, 2005. 4.7. 연합뉴스 2005. 4.7에서 재인용

19) 럽병호,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5. 4. p.16

북한에서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이 소프트웨어 측면의 핵심전략이라면 인민경제의 개진현대화 전략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핵심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공장가동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을 정도로 생산기반이 붕괴되었다. 이것은 에너지의 극심한 부족에 기인함과 동시에 극도로 낙후되고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정상화의 일차적인 과제가 노후설비의 개선이라는 인식하에 2000년대에 들어 이를 전략적인 과제로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진현대화 전략은 2000년대 초기에는 노후화된 시설의 수리, 교체 등에 초점이 두어졌으나 점차 이 전략은 생산의 정상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최신 설비의 도입, 교체 등으로 생산원가의 감소, 제품의 질 제고 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재원부족,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개진현대화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또한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약요인 때문에 개진현대화 원칙으로 긴요하고 중요한 생산부문을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이를 확대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진현대화사업은 북한의 낙후된 산업설비와 재원규모를 감안해 볼 때 과학기술중시정책과 함께 앞으로도 상당기간 북한경제의 일차적인 전략과제로 계속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경제관리제도의 지속적 개선: 경제통제력의 강화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다’고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기한 이후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을 매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요 과제로 제기해 오고 있다. 2003년과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관리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언급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경제관리에 대한 과제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과제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고 실리측면에서 생산의 전문화, 규격화, 표준화의 적극적인 도입, 질 제고, 절약투쟁의 강화, 과학적인 경영전략과 기업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경제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난 해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

서를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한다',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등의 표현은 경제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관리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는 것'으로 이것은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부터 매년 언급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원칙'은 경제관리의 생명이고 '실리'는 경제활동의 기본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으로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당)의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경제사업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확고히 견지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받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⁰⁾.

한편 경제관리의 기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리는 경제적인 효율과 효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오고 있는 개념이다²¹⁾. 2005년 신년공동사설부터 경제관리분야에서 실리확보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제로는 생산의 전문화와 규격화, 표준화의 실현과 과학적인 경영전략과 기업전략의 확립이다. 규격화, 표준화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의 전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의 절약도 유도할 수 있고 경제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²²⁾. 한편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의 확립은 모든 부문, 단위들이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전략을 확립해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의 원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각 단위들에게 독립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기업, 경영전략이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²³⁾.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경제관리제도에서 많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2003년 3월 종합시장을 개설하였고 개인사업의 허용 등 상업유통부문을 개혁하였고 인민공채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는 집단영농방식을 완화하고 가족영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일부 공장, 기업소에 대해 생산계획수립, 임금결정, 노무관리 등에서 지배인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의

20) 럽명학, "사회주의원칙과 실리는 경제관리의 본성적 요구", 『로동신문』, 2005. 6.10

21) 1998년 9월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사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는 경제사업에서 실제적인 이익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사업태도를 강조해 실리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22) 한영진, "규격화, 표준화와 경제적 실리보장", 『로동신문』, 2004. 12.12.

23) 차영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경제사업의 실리보장을 위한 담보", 『민주조선』, 2005. 11.26.

〈표〉 신년공동사설 경제관리부문 연도별 비교 (2001-2006)

| 연도 | 내 용 |
|------|---|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규률, 노동행정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실현하며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야 함 ▪ 경제관리와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함 |
|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게 발휘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함 -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함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패있게 내밀어야 함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함 |
|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 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 사회주의 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함 -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사회적 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함 |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조직사업을 해도 실리가 나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함 ▪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개선해야 함 |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²⁴⁾.

그러나 최근 경제관리의 제도적 변화는 그리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경제관리에서 실리 측면에 더 무게를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방향으로 중심을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6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연한 질서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의 집단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계획규율, 노동행정규율, 재정규율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앞에서 설명한 2005년 10월 식량 배급제도의 복원과도 일면 상통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조적인 공간으로 시장을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경제관리운영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도 계획경제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국영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이란 공간을 활용해 결합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²⁵⁾.

북한의 이러한 경제관리제도의 정책방향에서 볼 때 당분간 관리제도의 변화는 북한당국의 경제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국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경제관리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문 평가와 올해의 전망>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와 소위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매년 경제정책에 일부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통치전략으로 설정하고 선군정치에 따른 노선으로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는 한편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경제목표로 설정해 오고 있다. 매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방침,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과제 및 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소 변화를 보이면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추진해 온 기본정책구도에는 변화가 없이 작년에 제시됐던 경제내용과 거의 동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국방공업 최우선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강조, 2005년부터 시작된 농업의 주공전선, 2000년대에 들어

2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2005.3) 참조

25) ‘국영기업을 기본으로 시장을 결합’, 『조선신보』, 2005. 10.28

지속적으로 강조, 추진되고 있는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절박한 문제로 제기한 이후 주요 과제가 된 경제관리제도의 개선문제 등이 금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따라서 금년 신년공동사설의 경제부문 내용을 근거로 할 때 단기간 내에 북한의 경제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부문 제시내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문제이다. 국방공업의 선차론, 농업의 주공전선, 경제전략으로서의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등과 관련된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본의 확보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자체적인 조달능력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된 자본이 일차적으로 군사목적의 군수품 생산에 배분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민간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군수산업에 대한 우선적 배분은 결국 주공전선인 농업분야, 경제전략으로 추진하는 공장, 기업소의 개건현대화라는 과제달성에 제한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바로 북한의 빠른 경제회복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긴요하고 실리있는 대상부터 골라 하나가 열, 열이 백을 현대화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내부자원부족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부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가 경제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제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권한과 역할의 강조, 계획·노동행정·재정규율의 강화, 집단주의적 해결방안 강구 등 전체적으로 작년 신년공동사설 보다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운영방식과 계획경제의 틀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다²⁶⁾. 이러한 입장선회는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시도된 바 있는 종합시장에서의 쌀 판매금지와 식량배급제의 부활 등의 조치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제도 개선과 그 이후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빈부격차, 높은 인플레이션, 사회체제의 이완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시장, 유통, 가격 등 모든

26) 특히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한다. 작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없었다. 이러한 표현은 체제이완이나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통합적인 언술이기도 하지만 경제운영에서도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분야를 중앙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장조차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계획경제의 한 보조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경제관리면에서 공장, 기업소에 대한 권한 확대, 세부적 지표의 하부기관으로의 이양, 인센티브의 강화 등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자율권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충분한 통제력 확보를 기본전제로 점진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전략이나 경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이 내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관리제도도 기본적으로 경제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올해의 경우도 북한경제가 크게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북한이 내부적인 개혁보다는 외자유치를 위한 개방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별첨> 신년 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 2005년, 2006년

| | 2005년 신년 공동사설 | 2006년 신년 공동사설 |
|----------|---|---|
| 제목 |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
| 지난해 경제평가 | <p>·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가 이룩</p> <p>-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 간에 볼 수 없었던 생산적 양양이 일어남</p> <p>-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공사가 적극 추진되어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 마련</p> | <p>· 사회주의 경제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에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p> <p>-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p> <p>- 대안천선유리공장과 백마-철산물길을 비롯한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p> <p>-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많은 대상들이 개건 현대화</p> <p>-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진입</p> |
| 올해의 의미 | <p>2005년은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 건설 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게 될 보람찬 해</p> <p>“올해에 ---- 당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성대히 기념”</p> | <p>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p> |
| 전투적 구호 |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
| 당의 기본 방향 |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선군의 위력으로 새로운 혁명대고조를 일으킴으로써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우리 당과 조국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자랑찬 승리의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 것 |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것 |

| | 2005년 신년 공동사설 | 2006년 신년 공동사설 |
|----------------------|--|---|
| 경제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공업은 나라의 군사경제력의 기초 - 빈터 위에서 시작하여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다져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 -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사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중대사 -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함 - 가까운 년간에 경제전반이 흥하게 하고 인민들이 우리 경제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며 우리의 투쟁목표 |
| 경제 건설의 중심 과업 및 주요 방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 - 현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제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게 발휘되도록 함 -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함 -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을 틀어쥐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함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함 - 오늘의 선군혁명대고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함 당 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면 당, 행정배합을 잘해 나가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경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것을 요구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임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우고 새 출발을 한다는 립장에 서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내밀어야함 -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긴요하고 실리가 있는 대상부터 하나하나씩 실현하는 방법으로 개건현대화를 다그쳐야 함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길이 있음 -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실현하며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야 함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경제관리와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함 당, 행정, 기술일군의 3위 1체를 보장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이 주견과 신심을 가지고 올해 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쾌기있게 지휘해 나가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함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후방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함 |

| | 2005년 신년 공동사설 | 2006년 신년 공동사설 |
|----------------------------|---|--|
| 각 경제 부문에 대한 과업 | <p>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을 농사에 복종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 -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를 잘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 -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 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 - 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함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훨씬 늘려야 함 -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성장의 모범에 따라 주체적인 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반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 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함 -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p>농업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함 -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함 -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p>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부문에 국가적인 힘을 넣으며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중요탄광들에 역량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부쩍 늘려야 함 *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들어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p>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상을 일으켜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에서 공법을 철저히 지키고 질을 높여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함 -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 늘어나는 인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함 - 국토환경보호사업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 우리나라를 풍치수려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금수강산으로 빛내여 나가야 함 |

경제자료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2001-2006)

본 자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6년간 발표된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제목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경제부문 제시내용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2005년 신년공동사설의 내용과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에 따른 국방공업의 중시, 2005년부터 설정된 농업의 주공전선,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경제관리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재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올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경제부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올해 북한이 경제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앞의 “2006년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분석” 참조)

1. 연도별 사설 제목

| 구분 | 연도 | 내 용 |
|----|---------------|--|
| 제목 | 2006 |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
| | 2005 |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
| | 2004 |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 | 2003 |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
| | 2002 |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
| | 2001 |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
| 형식 | 2001 ~2006 |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

2. 전년도 경제성과

| 연도 | 전년도 경제성과 |
|------|---|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경제건설 분야에서 최근 몇 해 동안에 해놓은 일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진 - 대안친선유리공장과 백마-철산물길을 비롯한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 건설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많은 대상들이 개건 현대화 - 기간공업과 중요공업부문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의 궤도에 진입 |
|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간에 볼 수 없었던 생산적 양양 -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공사가 적극 추진되어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 마련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자립적 경제력이 한층 강화 ▪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망을 열어 놓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 -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가 힘있게 벌어졌으며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에서 훌륭한 경험이 창조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양양의 돌파구가 열리고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 |
|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경제분야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건설 - 새세기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었음 |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는 세기를 진감시킨 천리마 대고조의 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린 보람찬 투쟁의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건설 -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는 사회주의경제를 활성화 |

3. 경제목표

| 연도 | 경제목표 |
|------|---|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사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제일중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년간에 경제전반이 흥하게 하고 인민들이 우리 경제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며 우리의 투쟁목표 |
|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공업은 나라의 군사경제력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터 우에서 시작하여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다져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 -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함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함 ▪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시대 경제와 과학기술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현대화되고 활력있는 경제와 과학기술로 되어야 함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의 기치밑에 공화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자면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해야 함 |
|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시기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 것임 |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기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음 |

4.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 연도 |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
|------|--|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야 함 ▪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선 우리경제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것을 요구 ▪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우고 새 출발을 한다는 립장에 서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신적으로 내밀어야 함 -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긴급하고 실리가 있는 대상부터 하나하나씩 실현하는 방법으로 개건현대화를 다그쳐야 함 ▪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야 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규률, 로동행정규률, 재정규률을 강화하고 생산의 전문화와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실현하며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함 - 경제부문 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실리를 따져가며 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야 함 ▪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함 ▪ 경제관리와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사회주의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함 ▪ 당, 행정, 기술일군의 3위 1체를 보장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이 주건과 신심을 가지고 올해 전투를 통이 크게 작전하고 쾌기있게 지휘해 나가도록 적극 밀어주어야 함 ▪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은 후방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주어야 함 |

| 연도 |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
|------|---|
|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게 발휘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함 -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을 틀어쥐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함 - 오늘의 선군혁명대고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함 ▪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함 ▪ 당 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면 당, 행정배합을 잘해 나가야 함 |

| 연도 |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선진수준을 올려세워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과학의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강화 - 과학기술분야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과학자, 기술자 후비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 ▪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괏있게 내밀어야 함 ▪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 ▪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물과 건설의 질 제고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함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진지하게 배우고 최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야 함 |

| 연도 |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
|------|--|
|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 -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사회적 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함 ▪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함 -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함 -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 ▪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나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질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함 |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진행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현재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 -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 - 온 사회에 과학기술 중시 기풍 조성 ▪ 경제조직사업을 해도 실리가 나게 효율적으로 추진 ▪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개선 ▪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풍 조성 |

5. 경제부문별 과제

| 연도 | 경제부문별 과제 |
|------|--|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해 주어야 함 - 인민군대처럼 혁명적으로 달라붙어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일을 간지게 하며 모든 지원자들은 지난해처럼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 - 미루벌을 비롯한 도처에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토지관리를 잘 하여야 함 -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전력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부문에 국가적인 힘을 쏟으며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중요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석탄생산을 부쩍 늘려야 함 ▪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적인 철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생산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립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하면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새로운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함. - 건설에서 공법을 철저히 지키고 질을 높여 선군시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함 -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려 늘어나는 인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함 - 국토환경보호사업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 우리나라를 풍치수려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금수강산으로 빛내여 나가야 함 |

| 연도 | 경제부문별 과제 |
|------|--|
| 2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을 농사에 복종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 -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입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를 잘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 -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 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 - 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훨씬 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성강의 모범에 따라 주체적인 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 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함 ▪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

| 연도 | 경제부문별 과제 |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되는 힘을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발전소들의 개건보수와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쓸모있게 건설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령활하게 하여야 함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 ▪ 경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제고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농사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 그리고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물길공사를 다그침 ▪ 축산기지들과 개건 현대화된 닭공장들이 큰 은을 내게 함 ▪ 평양을 더 잘 꾸리고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함 ▪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 ▪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

| 연도 | 경제부문별 과제 |
|------|--|
|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경제의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 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 양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입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야 함 ▪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우리는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함 -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함 |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에 힘있게 다그치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석탄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감 - 금속공장들의 설비현대화로 철강재생산에서 혁신 - 철도운수를 정비보강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1차 식품소비품과 기초식품 증산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 면적의 적극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 높은 물고기 사육 - 현대적인 축산기지 설치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대자연 개조사업의 독려 ▪ 사회적 시책으로 휴양소, 정양소, 병원들을 비롯한 문화후생 및 보건시설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더 많이 건설 |

경제자료

2005년도 김정일위원장의 경제부문 현지도

본 자료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2005년도 김정일위원장의 현지도 중 경제부문 현지도 방문지와 현지도시 제시되었던 주요 경제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통일부 분석(「주간북한동향」, 제774호)에 따르면 2005년 김정일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총 131회로 이중 경제관련 현지도는 지난 해 경제부문 현지도 10회보다 크게 늘어난 19회(15%)로 경제개선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본 자료의 2005년 경제부문 현지도 내역에는 군 관련 경제부문 현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군 관련 현지도를 제외할 경우 17회로 추계되고 있다. 통일부가 경제부문 현지도를 19회로 본 것은 9월 17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홍남제약공장 현지도를 별개의 현지도로 보았고 10월 9일의 대안친선유리공장 준공식 참석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2005년 경제부문 현지도(군관련 부문은 제외)는 1월에 제철, 기계분야에 3번 이루어진 후 거의가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특히 당 창건 60주년 기념일 전인 9월(5회)과 12월(5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분야별로는 기계분야에 가장 많은 5번의 현지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비료, 식료, 제철, 제염소, 오리공장,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도가 실시되었다.

■ 2005년 경제부문(군 관련 경제부문 포함)현지도 내역 ■

1. 1월 13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
2. 1월 14일 9월제철종합기업소
3. 1월 15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4. 1월 29일 인민군 제966군부대의 돼지공장(군 관련)
5. 5월 27일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장
6. 7월 18일 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군 관련)
7. 7월 23일 원산만제염소
8. 9월 1일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16호 농장(군 관련)
9. 9월 5일 4월16일 염소목장(군 관련)
10. 9월 6일 황해북도 미루벌
11. 9월 15일 광포오리공장
12. 9월 16일 단천내화물공장
13. 9월 17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제약공장
14. 9월 18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15. 9월 22일 인민군 제966군부대 발전소(군 관련)
16. 10월 5일 대안친선유리공장
17. 11월 1일 평양시내 공업부문 사업
18. 11월 6일 115호 오리공장(군 관련)
19. 11월 8일 내평2호군민발전소(군 관련)
20. 12월 4일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21. 12월 5일 백마-철산물길
22. 12월 6일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북중전극공장
23. 12월 14일 령남배수리공장에 새로 건설된 2호도크
24. 12월 16일 룡성식료공장
25. 12월 24일 돼지원종장과 육류랭동고(군 관련)

* 날짜는 「로동신문」 게재일

■ 2005년 경제부문 현지지도 주요 내용 ■

1. 1월 13일 : 북중기계연합기업소 (『로동신문』, 1. 13)

- 북중기계연합기업소의 달라진 열처리·주물·가공 공정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을 격려한 뒤 기업소 지도일꾼들에게 과학적인 경영전략과 기업전략을 갖고 관리·운영하여 생산에서 실리주의 원칙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
- 북중기계연합기업소가 각종 기관과 압축기 등 기계제품을 제작하여 국가의 선박공업 발전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생산공정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해 공장 면모를 일신했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려면 고깃배와 짐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능 높은 기관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

2. 1월 14일 : 9월제철종합기업소 (『로동신문』, 1. 14)

- 9월제철종합기업소가 초고전력 전기로에 의한 강철 생산체제를 확립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노동자와 기술자, 과학자·기술자동격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들이 합심해 현대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치하
- 새로운 압연직장 건설을 비롯한 여러 공정을 보충·완비해 생산능력을 부단히 늘리고 현대화, 과학화에 계속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모범을 따라 배워 철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고 지시

3. 1월 15일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로동신문』, 1. 15)

- 굴착기와 유압식 공중대차, 산소분리기 등 새로 제작한 기계를 둘러본 뒤 능률적인 기계를 단기간에 창안하고 기술수준을 높인 것을 치하
- 생산공정의 기술개조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 만족감을 표시한 뒤 공장의 일신을 위해서는 기술개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유압기술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시

4. 1월 29일 :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의 돼지공장 (『로동신문』, 1. 29)

- 비육사, 가공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돼지생산으로 군인들의 식생활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

- 돼지 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돼지공장의 현대화, 우량품종 개발, 선진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5. 5월 27일 :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장 (『로동신문』, 5. 27)

- 원산청년발전소는 원산시의 전기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크고 작은 강·하천이 많고 강수량이 많은 강원도에서 풍부한 수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함께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자는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지시
-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철저한 공법 준수교육 강화, 선진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6. 7월 18일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 (『로동신문』, 7. 18)

- 종합식료가공공장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생산 및 위생 면에서 최상의 수준이라고 치하
- 군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이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산 수준 정상화, 생산자들의 기능수준 제고, 철저한 설비관리 등을 강조

7. 7월 23일 : 원산만제염소 (『로동신문』, 7. 23)

- 광활한 지역에 펼쳐진 소금밭과 소금정제직장을 비롯한 생산건물들, 산기슭에 즐비한 주택과 문화시설을 둘러보고 이처럼 큰 공사를 해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
- 원산만제염소는 도내 인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기업소라고 하면서 소금밭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

8. 9월 1일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 (『로동신문』, 9. 1)

- 여러 가지 작물들의 포전을 둘러본 후 생산증대, 농업 과학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
- 기후풍토에 맞고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
- 감자농사혁명방침 준수, 두벌농사 등을 위한 영농방법 개선, 농촌경리의 종합적인 기계화 실현, 과일과 기름 생산 증대 등을 지시

9. 9월 5일 : 4월16일 염소목장 (『로동신문』, 9. 5)

- 군부대에서 목장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젓 생산을 크게 늘인 것과 목장을 휴양소처럼 알뜰하게 꾸린 것 등을 높이 평가
- 목장에서 젓 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염소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설비를 만가동해야 한다고 강조

10. 9월 6일 : 황해북도 미루벌 (『로동신문』, 9. 6)

- 미루벌에 자리잡고 있는 농장들이 시험포전을 이용하여 작물재배시험과 지대의 특성에 맞는 경작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 기술을 도입한 일군들과 기술자, 농업근로자들의 진취적인 모습을 치하
- 미루벌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석회를 계획적으로 뿌려 땅의 산성화를 막고, 토심이 깊은 미루벌의 특성에 맞게 논밭깊이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 농업의 기계화를 강조하면서 현대적인 각종 기계들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

11. 9월 15일 : 광포오리공장 (『로동신문』, 9. 15)

-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무엇보다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공장의 사료를 맡은 협동농장들의 알곡수확고를 부단히 높이는 한편 광포호수에서 자라는 수초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지적

- 오리고기 생산을 늘이기 위해서 과학적인 사양관리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 품종을 적극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 질 좋은 오리가공품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오리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기를 수 있는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
- 광포오리공장을 대규모 고기생산기지로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
 - 공장의 단계별 목표 선정
 -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 적극 추진

12. 9월 16일 : 단천내화물공장 (『로동신문』, 9. 16)

- 단천내화물공장의 노동계급이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마그네시아 클링커(내화물 원료) 생산공정을 짧은 기간에 꾸림으로써 순도 높은 클링커를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해 큰 만족을 표시
- 나날이 늘어나는 내화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마그네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질 좋은 클링커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

13. 9월 17일 :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제약공장 (『로동신문』, 9. 17)

< 룡성기계연합기업소 >

- 기업소가 굴지의 대기계 제작기지가 되었다면서 룡성의 노동계급이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압축기를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
- 룡성기계연합기업소와 같은 수많은 기계공장들의 뒷받침이 있어 그토록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경제력을 급속히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기계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을 강조

< 흥남제약공장 >

- 흥남제약공장은 제약공업의 모체 공장으로서 하나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인민들

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약품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약품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 필요한 상비약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라며 고려약 생산을 과학화·공업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당부

14. 9월 18일 :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로동신문』, 9. 18)

- 농촌에 여러가지 비료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공정들을 최신설비들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선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 흥남의 노동계급은 지난 기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농업전선에 많은 화학비료를 제공함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국산 원료자재에 의한 비료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원가를 부단히 낮추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꾸준히 한 결과 화학비료공업의 주체성이 강화되었다고 치하

15. 9월 22일 :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의 발전소 (『로동신문』, 9. 22)

- 발전소가 실리적으로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높은 수준으로 시공되었다고 평가
- 군부대 군인들이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최근 여러개의 현대적인 발전소들을 연이어 건설하여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등 부대의 전기화를 실현한 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치하
- 발전소에서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잘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16. 10월 5일 : 대안친선유리공장 (『로동신문』, 10. 5)

- 공장이 설계로부터 기술장비,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됐으며 북·중 두 나라 건설자들의 눈부신 투쟁으로 현대적인 유리공장이 단기

간에 훌륭히 건설된데 대해 만족을 표시

-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 등 중국 당과 정부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던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인 유리공장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공장건설을 성심성의로 도와줬다면 우리 인민은 이 사심없는 형제적 우의와 협조를 고맙게 생각하며 위대한 친선의 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귀중히 여길 것이라고 치하
- 공장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한 중국 요화유리집단공사 간부, 기술자, 노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 뒤 우리 일꾼과 기술자들은 중국 동지들과 긴밀히 연계, 협력해 제기되는 경제·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17. 11월 1일 : 평양시내 공업부문 사업 (『로동신문』, 11. 1)

<평양 326 전선공장>

- 생산공정을 둘러보면서 공업건설에서 기초를 이루는 전선생산을 담당한 이 공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

<평양승강기공장>

- 수평팔탐식기중기(크레인)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수평팔탐식기중기를 대량 생산해 건설부문과 무역항을 비롯해 수하물을 취급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
- 평양승강기공장과 평양승강기설계연구소 자체의 힘과 기술, 자재로 능률적인 기중기를 만든 것에 만족을 표시

<평양자전거합영공장>

- 도시용, 산악용, 어린이용 자전거를 살펴보고 이 공장에서 여러 종류의 자전거를 생산하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
- 자전거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활상 편의와 건강을 보장하고 도시의 공해를 방지하는데도 매우 좋으며 자전거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

18. 11월 6일 : 115호 오리공장 (『로동신문』, 11. 6)

- 모든 강·하천들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의 하나라고 밝힘

- 당의 과학중시방침을 받아들이고 기술개건으로 제품의 질을 높여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면서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
-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콩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의 공급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19. 11월 8일 : 내평2호 군민발전소 (『로동신문』, 11. 8)

-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고 평가
- 새로 건설된 내평2호 군민발전소는 나라의 부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발전소 능력을 더욱 높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
 - 발전소 관리운영을 과학화, 새로운 기술 습득
- 생산된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전력생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

20. 12월 4일 :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포향주철직장 (『로동신문』, 12. 4)

- 최첨단기술로 만들어진 주물제품, 깨끗한 작업장을 보고 현대적인 주철직장을 건설한데 대해 기업소의 기술개건에 크게 기여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
- 신포향주철직장은 나라의 주물생산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과업을 제시
 - 최신 과학기술을 갖춘 이 직장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
 - 주물생산의 전문화 강조
 - 기술자, 노동자들의 기능수준 향상 요구

21. 12월 5일 : 백마-철산 물길 (『로동신문』, 12.. 5)

- 건설자들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자연개조공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

- 백마-철산 물길은 평안북도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 물길이용과 관리운영에서 과업을 제시
 - 물문제가 해결되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으므로 농사에 역량을 집중
 - 관개용수로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음료수로도 이용

22. 12월 6일 :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북중전극공장 (『로동신문』, 12. 6)

<북중기계연합기업소>

-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기관, 압축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들을 만들어내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프로젝트설비)의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치하
-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북중기계연합기업소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업을 제시
 -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토대인 중공업 발전 지시
 - 기술개건사업을 심화시키는 한편,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
 -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지적

<북중전극공장>

- 전극의 주원료인 흑연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전극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극생산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

23. 12월 14일 : 령남배수리공장에 새로 건설된 2호도크 (『로동신문』, 12. 14)

- 개건·확장된 령남배수리공장은 나라의 해운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 공장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과업을 제시
 - 배의 생산 및 수리 능력 증가, 선원을 위한 시설 확충 등을 지시
- 수만 톤급의 대형 선박을 댈 수 있는 현대적인 부두를 건설하여 증가하는 해상운수 요구에 맞게 남포항의 능력을 높인 데 대해 만족을 표시

24. 12월 16일 : 룡성식료공장 (『로동신문』, 12. 16)

- 새로 건설된 직장들의 능력에 맞게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필요한 원료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
- 식료품 생산에서도 포장과 상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25. 12월 24일 : 돼지원종장과 육류랭동고 (『로동신문』, 12. 24)

<돼지원종장>

- 돼지원종장은 나라의 축산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관리운영 과업을 제시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돼지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량품종 개발, 돼지사육체계 과학화, 철저한 수의방역체계 수립 등을 지시

<육류랭동고>

- 사회의 모든 일꾼들은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

경제자료

2006년 UNICEF 인도지원활동: 북한

본 자료는 1월 23일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2006년 UNICEF 인도지원활동계획 중 대북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 등 29개 지역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계획을 발표한 UNICEF는 2006년 대북지원계획에 필요한 자금으로 보건과 영양개선 사업에 7,315,500달러, 식수 및 환경위생개선사업에 3,184,500달러, 교육사업에 700,000달러 등 모두 11,200,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영양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다소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만성적 영양실조와 저체중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고, 약 1/3에 달하는 어머니들이 2002년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와 빈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한 집단에게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UNICEF의 2005년 주요 활동과 실적 그리고 영양개선사업, 식수 및 환경위생개선사업, 교육사업 등 2006년 각 사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열거하고 있다.

자료원:<http://www.reliefweb.int/library/documents/2006/unicef-hrep-23jan.pdf>

1. 심각한 아동문제

북한은 1980년대 말까지 주요 사회지표인 보건, 식수, 위생, 교육성취도, 사망률 등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까지 의무교육과 남녀평등의 목표 등에서 일부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와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에 따른 대규모 기근으로 북한은 1990년대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였다. 불안정한 식량상황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영양실조를 야기시켰다. 보건의료수준은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했다. 그리고 의약품도 부족했다. 에너지공급체계의 붕괴는 이것을 더욱 촉진시켰다.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심각했고, 교육의 질도 하부구조의

붕괴와 학교공급품의 극심한 부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공업과 농업생산의 상당한 감소와 결부되어 주민들에게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능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계지 경작, 대량의 땀감채취(상당기간 영하인 겨울에 부족한 석탄 대신 취사와 난방용으로 사용) 등 주민들의 대응전략은 산림과 환경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북한당국은 2002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일련의 경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 증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고용기회의 감소로 도시주민 가운데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2002년, 2004년에 실시된 영양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0년동안 주민들의 절실한 문제였던 먹는 문제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분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동사망을 감소율에서 현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달성하고, 모성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다. 2004년 영양실태조사에서는 어린아동들의 영양상태가 2002년 이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 영양실조와 저체중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다. 또한 약 1/3에 달하는 어머니들이 2002년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와 빈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들의 영양실조는 북쪽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이나 어머니 같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2. 2005년의 주요활동과 실적

UNICEF는 지역, 국가, 국제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보건, 영양, 식수, 위생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요구에 대응해 왔다. 인도지원 단체들은 203개 군 가운데 주민의 15%가 거주하는 42개 군에는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하다.

보건과 위생분야의 정기적인 면역서비스는 기술, 공급측면에서의 지원증가로 개선되었다. 1세 미만 아기들의 90% 이상이 결핵, 소아마비, 홍역, B형간염 접종을 받고 있고 약 80%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그리고 임산부의 93% 이상이 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기술과 약품지원은 약 보관소의 공급상황과 경구보급염(ORS)의 지역생산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약 2백만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비타민 A 보충제와 구충제를 제공하였다. 2005년 9월까지 의약상자 9500개가 2648개 의료시설에 제공되어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들을 즉시 치료

할 수 있었다.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1만명 정도의 어린이 가운데 27%가 넘는 어린이들이 전국적으로 156개의 보호소에서 회복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여성들에게 임신 전에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임신 첫 3개월 동안에는 복합미량영양소를 제공하였다. 약 2백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30만명의 임산부에게는 WFP와 합동으로 미네랄과 비타민 강화식품을 제공하였다.

영양실조에 대한 예방전략의 일환으로 어린이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보호시설의 주요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주요 보호활동 지침들이 전국 가정에 배포되었다. 병원관리체계 밖에서의 일차적인 종합보건의료체계는 출산전후 관리, 어린이의 일상적인 건강문제, 지역의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지역담당 의사를 통해 강화되었다. 6500명의 어린이를 포함 8만명의 주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식수와 학교와 병원의 새로운 위생시설로 도움을 받았고, 약 5백만명 이상이 도시중앙의 식수처리장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약 1000 가구가 현재 가정에서 개선된 정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05년 동안 초등학교와 유치원생 214,500명이 교과서를, 65만명이 문구류세트를 받았다. 그리고 4개 학교 어린이 약 4천명이 전반적인 학교시설의 개선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2006년 인도지원 활동계획

조정과 협력

- UN 기구와 NGO로 구성되는 기구간 협의체가 한달에 한번 만나 제기되는 문제, 진전 상황, 계획, 전략을 논의한다. 일주일에 한번은 기구간 회의를 열어 UN 기구와 NGO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성, 부서, 지역당국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

정제프로그램

현재 북한에 대한 프로그램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이다. 프로그램 주요 분야는 '보건과 영양', '식수와 환경위생', '교육', '지원과 계획' 등 4분야이다. 지역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정된 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긴급을 요하는 어린이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지만 어린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능력제고에 대한 참여전략을 통해 기본적인 상황을 다소나마 개선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보건과 영양(7,315,500 미달러)

보건서비스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모든 18세 미만의 주민 특히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보건과 영양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이다.

-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90% 이상): 백신과 주사기 제공으로 DTP3의 접종률을 80%에서 85%로 증가: 50개 군에 저온유통능력 강화 그리고 환경평가지수(EMI) 다년 계획 개발
- 지정된 군의 보건시설에 수술실 개선과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한 모성능력의 강화 그리고 조산도구의 공급
- 총 인구의 약 60%를 커버할 수 있는 2,600개의 보건시설에 약 상자(최소 6개의 가장 긴요한 약품 포함) 조달과 보급
- 접근가능한 군의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임산부를 위해 WFP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혼합식품 생산에 필요한 4만톤의 비타민, 미네랄 확보
- 심각한 영양실조에 있는 20,000명의 어린이(해당 어린이의 50%)에 대한 치료적 급식지원 지속
- 임신 전에 있는 30만명의 여성들에게 철분과 엽산제공 그리고 임신 첫 3개월 사이에 있는 30만명의 여성들에게는 복합미량영양소 제공
- 일년에 두 번 5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비타민A 보충제와 구충제 지급
- 심각한 영양실조를 담당할 120명의 보건요원 훈련
- 중앙 의약보관소와 8개 도 의약보관소의 유통, 보관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제고
- 경구보급염의 지역생산을 위한 원료제공으로 연간 5백만포(지역 필요량의 60% 수준)로 생산량증대
- 지정된 군에 있는 2500명의 지역담당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기초진료기구 제공
- 설사병과 호흡기계통의 전염병 같은 어린이 병을 적절히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500명의 보건요원 훈련
- 조선여성협회의 요원들을 훈련시켜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간병행위를 보급시키고, 특히 영양실조의 예방에 역점을 두면서 주요 간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병인을 훈련
- IMCI(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와 관련된 두 시범지역의 성과를 모니터, 평가하며 이 계획의 확대를 준비
- 10개의 지정된 군에 대해 IECD(International Emergency Capacity Development) 전략 수행에 대한 지원지속

식수 및 환경위생(3,184,500 미달러)

어린이집,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포함 약 5백만명의 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 지정된 군에 있는 15개 어린이 보호기관에 식수와 위생시설을 복구해 1만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제공
- 식수처리에 화학품과 부품을 제공해 도시지역에 있는 5백만명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
- 3개의 지정된 군에 물 공급체계를 복구, 개선해 9만명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
- 지정된 군 1500가구의 화장실을 복구/개선
- 전국과 지역단위 100명의 기술자들에게 물 공급체계에 대한 설계와 관리에 대한 훈련
- 2002년부터 위생시설이 좋아진 50개 학교에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위생개선에 30,000명의 어린이를 참여
- 지정된 10개 군과 5개의 주요 도시에 있는 15개의 전염병예방연구소에 수질관리시험기를 제공해 수질관리능력을 제고

교육(700,000 미달러)

4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4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교과서를 복사할 수 있는 200톤의 종이 등 기본 학습재료를 공급
- 지정된 군에 있는 최소 5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이중문을 설치하고 취사장과 식수, 위생시설을 개선해 1만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제공
-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50명의 교육성 관리를 훈련해 평가와 평생기술 교육을 습득하게 하며 지정된 군에 있는 20개의 시범학교에 이러한 활동을 도입

부문별 주요동향 (12.25~1.24)

| | |
|----------------------------|----|
| 1. 대내경제 | 49 |
| 1년만에 인민생활공채 추첨 | 49 |
| 김정일, 돼지원종농장 시찰 및 공연 관람 | 49 |
| 경제 올해 회복세 접어들어 | 49 |
| 경공업공장 현대화 주력 | 50 |
| 올해 체신 현대화 성과 | 50 |
| 정보·나노기술 발전 힘써야 | 51 |
| 인터넷 쇼핑몰 개설 | 51 |
| 신년 공동사설 발표 | 52 |
| 김정일,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김책공업대학 방문 | 52 |
| 기간공업 및 농업 3년연속계획 돌입 | 52 |
| 군고구마 매대 4월 중순까지 운영 | 53 |
| 온 나라 컴퓨터화 실현하자 | 53 |
| 각 도별 올해 경제과제 | 53 |
| 김책공대서 사이버 강의 실시 | 55 |
| 최고수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 56 |
| 화력발전소 전력증산 촉구 | 56 |
| 올해 경공업에 '집중투자' 의지 | 57 |
| 생산품 표준화·규격화 운동 | 57 |
| 통일부, 북한경제 7년째 플러스 성장 | 58 |
| 송전계통 기술관리 개선 노력 | 59 |
| 인민대학습당 과학자 재교육 강화 | 59 |
| 주민생활 개선 방안 제시 | 60 |
| 북한 과학기술 '국가 중점과제' 수행 강조 | 60 |
| 2. 농업 및 식량 | 61 |
| 축산물 생산기지 설비개선 노력 | 61 |
| 협동농장 노동평가 제대로 해야 | 61 |
| WFP, 대북 식량지원 사업 중단 | 62 |
| WFP, 북한 식량지원 재개 준비 | 62 |
| 북한 산모 빈혈 6년간 제자리걸음 | 63 |
| 3. 대외경제 | 64 |
| 북-중, 해상 원유 공동개발 협정체결 | 64 |
| 북-러 투자보장협정 서명 | 64 |
| 3/4분기 북-미 교역량 급감 | 64 |
| 북한에 외화전용 전자화폐 첫 등장 | 64 |

| | |
|--------------------------------------|-----------|
| 북한 예산-중국 창바이, 국경무역 협력 강화 | 65 |
| 북한, 베트남과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조인 | 65 |
| 북한, 중국기업에 단광 개방 | 65 |
| 북한 채권 액면가의 5분의 1에 거래 | 66 |
| 북한상품 종합판매장 홍콩에 개장 | 66 |
| 중국, 북한 우라늄광 개발에 눈독 | 67 |
| 중국, 북-러 잇는 관광 상품 출시 | 67 |
|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68 |
| 북한 정촌 흑연 2006년 2월 반입 | 68 |
| 개성서 경제협력상담회 개최 | 68 |
| 2005년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공개 | 68 |
| 남북 과학협력 등에 514억 투입 | 69 |
| 개성공단 직통전화 개통 | 69 |
| 정부, 북한의 영·유아 지원위해 WHO에 100억 신탁 | 69 |
| 정부, 개성에 석탄 6만t 공급 | 70 |
| 남북합작 '경기-평양미' 첫 반입 | 70 |
| 남북한 천연기념물 CD 제작 | 71 |
| 인천항 남북교역 최다 기록 | 71 |
| 잡사회, 평양에 잡업단지 조성 추진 | 72 |
| 경남, 북한과 농업협력 합의각서 체결 | 72 |
| 남북 19~20일 개성서 경추위 접촉 | 73 |
| 평양 시범농장 30만평 확대 합의 | 73 |
| 북한, 남한출판사에 출판권 양도 | 74 |
| 통일부, 북한 투자 50억까지 손실보조 한도 높여 | 74 |
| 올해 남북협력기금 98% 증액 | 75 |
| 현대아산, 개성공단 관광 패키지 개발 | 75 |
| 남북협력기금으로 북측 백두산도로 부실공사 | 76 |
| 남북교역 작년 10억달러 돌파 | 76 |
|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 77 |
| 우리은행, 남북출입국사무소 환전소 개점 | 77 |
| 통일부, 12월 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 77 |
|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78 |
| 북-일, 수교협상 재개 및 분과위원회 개최 합의 | 78 |
| KEDO 대북 경수로사업 일지 | 79 |
| 북-중 최고지도자급 상호방문 일지 | 80 |
| WHO, 북한 결핵퇴치에 110만달러 지원 | 80 |
| 북한, 호주에 관계복원 요청 | 81 |
| 김정일 방중 결산 북한발표문 요지 | 81 |
| 6자회담 북·중·미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 83 |
| 북일 양자회담 내달 5일 재개 | 83 |

1. 대내경제

1년만에 인민생활공채 추첨

12월 26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2003년 발행하여 주민들에게 판매한 인민생활공채 4차 추첨 행사가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열렸다고 『중앙TV』를 인용해 보도. 이날 추첨에서는 액면가 500원, 1천원, 5천원권 순서로 각각 1~7등까지 당첨자를 뽑았으며 당첨금은 등수에 따라 50배(1등), 25배(2등), 10배(3등), 5배(4등), 4배(5등), 3배(6등), 2배(7등) 순이라고 『중앙TV』가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북한은 2003년 5~11월 500원, 1천원, 5천원권 등 모두 3종의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했으며, 1년 1~2차례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과 함께 원금을 중도 상환. 추첨 행사는 2003년 12월 25일 평양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로 2차 2004년 7월 황해북도 사리원시, 3차 2004년 12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약 6개월 간격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추첨은 1년만에 실시되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12. 26).

김정일, 돼지원종농장 시찰 및 공연 관람

12월 26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중앙방송』이 “김정일이 내각 총리 박봉주 등을 대동하고 돼지원종장과 육류냉동고를 현지지도하고, 군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김정일은 “돼지원종장을 비롯한 목장들에서 방역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 공훈국가합창단이 선군시대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국정원은 보도(『국정원』, 12. 26).

경제 올해 회복세 접어들어

12월 27일 KOTRA는 일본 에리나(ERINA)연구소 미쓰무라(三村光弘)연구원과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학자는 1999년부터 2004년을 ‘생산정상화를 위한 시기’로, 2005년을 ‘경제활성화의 시기’로 각각 구분했다고 보도. 그는 경제활성화의 목표를 1980년대 중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북한은 경제관리의 개선, 에너지, 생산설비의 정비, 유통, 농업, 인민생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특히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 식량과 13개 품목의 1차 소비품(간장, 된장, 소금, 비누, 세탁비누, 타올, 실, 치약, 칫솔, 가정용 연료, 양말, 신발, 내의)을 자체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방직, 화장품공장 등의 정비에 주력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전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 북측은 남측에 신발 6천만켈레 분, 비 누 2만t, 의류 7개 품목의 원자재 3만분 지원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KOTRA는 파악. 북한 경제학자는 “경제관리의 개선을 위해 공장, 기업소의 경영권 확대와 세부계획 지표 제정권한의 지방 및 현장 이양, 유희생산력 이용 자율권 확대, 국가가 정한 생활비 이상의 보너스를 올려줄 수 있는 권한 등 현장 중심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 그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 “석유는 여전히 부족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력은 2004년부터 안정적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2006년, 2007년 사이에는 전력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 그는 “유통부문은 소비재 공급을 위한 지역시장 외에도 기업소 상호 간에 물자를 유통시켜 나가는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국영기업소를 중심으로 가동시켜 나가고 있다”며 “국가가 공급이 어려운 물자에 대한 유통문제를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임(『KOTRA』, 12. 27).

경공업공장 현대화 주력

12월 27일 『연합뉴스』는 북한 경공업공장들이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 중앙통신은 이날 ‘개건 현대화된 경공업공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에서 경공업공장들을 개건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 평양방직공장은 종전에 비해 4배의 생산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편직사 직장이 지난달 하순 새로 조업했으며 선교편직공장은 200여 대의 편직 설비들로 생산공정이 보장됐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지방공업 부문에서도 현대화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개천·라선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30여 개의 시·군 기초식품공장들이 개건 현대화돼 간장, 된장 등 맛있고 영양가 높은 기초식품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 신의주콩우유공장과 함흥기초식품공장의 콩우유직장을 비롯해 각도에 수천t 생산능력의 콩우유 생산기지들이 세워져 어린이에게 콩우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밝힘(『연합뉴스』, 12. 27).

올해 체신 현대화 성과

12월 29일 『연합뉴스』는 올해 북한이 체신부문 현대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체신성 관계자들이 강조했다고 보도. 『중앙방송』은 29일 “체신부문의 일꾼과 노동계급이 올해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닫고 있다”며 체신성 김영기 국장과 최명남 부국장의 말을 전함. 이들은 “체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

됐다"면서 "올해 백 수십 개의 체신분소에 천 수백 km의 빛섬유(광섬유) 통신 케이블을 늘리고 전국의 시·군에 자동화를 실현한 데 기초해 수백 개의 농촌 리(里)까지 자동전화를 실현했다"고 밝힘. 또 "통신설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연구·제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에 토대해 통신선을 모두 케이블로 교체할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토지정리가 끝난 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밝힘. 관계자들은 이어 "전국의 시·군에 공중 전자우편을 실현해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무선방송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해서 방송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덧붙임(『연합뉴스』, 12. 29).

정보·나노기술 발전 힘써야

12월 29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첨단과학인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에 더욱 주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5년 4호는 "생산장성을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는 것"이라고 강조. 학보는 IT, NT, BT를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 기초기술'로 평가하면서 이런 기술들이 "새 재료, 에너지,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와 기계·금속·채취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응용기술분야에 전환을 일으켜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고 생산의 장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지적. 학보는 특히 IT분야를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보기술만 빨리 발전시켜도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보화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 또 "최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해 기계·금속·열공학을 비롯한 기술공학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국방공업과 전반적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할 수 있다"고 말함.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 원료,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임(『연합뉴스』, 12. 29).

인터넷 쇼핑몰 개설

1월 1일 『연합뉴스』는 북한 웹사이트 '내나라'가 새해부터 전자상점(인터넷 쇼핑몰, www.kcckp.net)을 개설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1일 '내나라'에 따르면 전자상점에서는 북한 소프트웨어제품, 예술작품, 전자도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한다고 밝힘. 구매자들은 비자, 마스터 카드를 비롯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북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전자상점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해 더 잘 알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1. 1).

신년 공동사설 발표

1월 2일 『로동신문』은 북한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제하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고 보도. 북한은 공동사설에서 올해의 투쟁과업으로서 “선군혁명 총진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 발양시킬 것”을 제시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개진 현대화 사업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우고 새출발한다는 입장에서 개진 현대화를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통일위업의 새 전기를 열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자세한 내용은 KDI 북한경제리뷰 이번호 동향과 분석 및 경제자료를 참조)(『로동신문』, 1. 2).

김정일,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김책공업대학 방문

1월 5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4일 『중앙통신』을 인용해 “김정일이 내각총리 박봉주, 당비서 최태복 등을 대동하고 김책공업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 이 방문에서 김정일은 “앞으로도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뉴스』는 밝힘(『국정원』, 1. 5).

기간공업 및 농업 3년연속계획 돌입

1월 13일 『조선신보』는 “조선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기간공업과 농업에서 3년연속계획을 집행하게 된다”며 이 기간에 “공업의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농업생산을 크게 늘리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된다”고 밝힘. 『조선신보』는 “3년연속계획 기간에 공업과 농업에서 달성해야 할 생산목표가 제시되고 그 연관부문의 생산이 여기에 맞물리도록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 이어 북한이 3년연속계획의 목표는 198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 수준의 재현이라며 “이 시기는 식량난, 전력부족과 같은 시련을 몰랐던 시기, 조선의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다”고 주장. 『조선신보』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북한의 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신년공동사설에 넘치는 낙관은 가까운 연간에 ‘경제상승의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리라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평가(『조선신보』, 1. 13).

군고구마 매대 4월 중순까지 운영

1월 15일 『조선신보』는 겨울철 평양거리의 명물로 등장한 군밤, 군고구마 매대가 오는 4월 15일까지 운영된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15일 “평양시 안에 꾸러진 매대수는 200개를 넘는다”면서 “시민들은 가을철, 한겨울을 넘어 입춘까지 군밤, 군고구마의 맛을 즐긴다”며 이같이 소개. 이 신문은 “매대에서 쓰는 밤과 고구마는 평양시 승호구역, 력포구역을 비롯한 시주변의 밭에서 재배한다”며 “해마다 약 350t의 고구마와 15t의 밤이 평양시 안의 군밤, 군고구마 매대에서 소비된다”고 밝힘.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한 한 매대에서는 하루에 고구마 350봉지, 밤 300봉지씩 팔릴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힘. 『조선신보』는 “매대에서는 날마다 늘어나는 손님들을 위해 예비로까지 만들어 놓았다”며 “매대에서는 고구마, 밤과 함께 따뜻한 우유나 차도 봉사하고 있다”고 덧붙임(『조선신보』, 1. 15).

온 나라 컴퓨터화 실현하자

1월 16일 『로동신문』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립 배경을 소개하면서 ‘온 나라의 컴퓨터화(컴퓨터화)’를 거듭 강조. 『로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9월 김책공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도서관은 전자도서관으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전자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함. 또 김 위원장이 “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다 채워놓자면 건물이 커야하지만 전자도서관으로 꾸리면 건물이 그리 크지 않아도 된다”면서 컴퓨터화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밝힘. 신문은 그러나 “(전자도서관 건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조국(북한)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의 지출로 둘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는 대상에 당면 지출을 해야 할 때였고 생산적 지출에 선차성을 부여해야 할 때였다”고 설명. 신문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자도서관 건설에 힘을 쏟았다면서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와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오늘 교육중시, 과학중시의 길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서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임(『로동신문』, 1. 16).

각 도별 올해 경제과제

1월 16일 『연합뉴스』는 새해 공동사설(신년사)에 제시된 과업 관철을 다짐하는 군중대회가 지난 4일 10만 여명의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평양시 군중대회를 시

작으로 지역 및 생산 단위에서 잇달아 개최되고 있다고 전함. 공동시설은 새해 경제 정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농업부문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 농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경제분야의 개진·현대화사업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움. 또 전력, 석탄, 금속, 수송 등 기간산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분야 증산을 촉구하면서 경제사업의 내각 집중 및 운영권 강화, 경제부문 일꾼들의 경영·기업전략을 강조, 내각 및 경제관료 중심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 이에 따라 각 도별 군중대회에서도 농업지원이 크게 강조되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다음은 북한 언론매체가 밝힌 각 도의 주요 경제과제임(『연합뉴스』, 1. 16).

| 도 | 사업 내용 |
|------|--|
| 평양시 | 농업부문 노력·설비·물자 최우선 지원 평양화력발전소,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전력·석탄생산 증대 경공업부문 생필품 증산 주택 및 공공건물, 산업시설 건설, 도시 재정비 평양3.26진선공장 따라배워 생산공정 개진·현대화 추진 |
| 평안남도 | 농업부문 지원 물길공사, 토지정리, 토지관리사업 추진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등 도내 제부문 생산 증대 평성시, 안주시, 문덕군 등 시·군지역 주택 건설 |
| 평안북도 | 국방공업 지원 철저한 농사준비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평향주철직장 역할 강화를 통한 주물제품 보장 경공업공장 생산공정 현대화 태천4호발전소 건설 조기 완공 남신의주 지구 주택건설 |
| 황해남도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콩농사 방침 철저 관철 지방공업 발전 생필품 증산 농장마을 조성 |
| 황해북도 | 농사에 역량 집중 미루벌 물길공사, 토지정리사업 추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100t 전기로 가동 정상화 마동세멘트공장 소성로를 비롯한 생산공정, 경공업 공장 개진 현대화 예성강발전소, 사리원예술극장, 은정양어장 건설 사리원시 민속거리 정비 |

| | |
|------|---|
| 함경남도 | 농업부문 총동원 검덕광업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 도내 공장·기업소 생산 증대 발전소 건설 경공업공장 시설 현대화 산업시설 개건 |
| 함경북도 | 농업부문 지원확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생산 확대 주택 건설 공장, 기업소 시설 현대화 량강도 농업부문 지원 해산청년광산, 연암·풍서임산사업소 등 광산, 임산사업소 생산 증대 삼수발전소, 백두산청년발전소 조기 완공 주택건설 |
| 자강도 | 강계청년발전소, 장자강발전소 등 전력공업 전력 증산 홍주청년2호발전소 조기완공 농업부문 역량 총동원 통나무 생산 확대 석탄, 금속공업부문 생산 정상화 |
| 강원도 | 농촌지원사업 전개 원산청년발전소 건설 원산만제염소 경영 합리화로 소금 증산 식용유 및 종이원료기지 조성 축산토대 구축 |

김책공대서 사이버 강의 실시

1월 17일 『조선신보』는 북한 최고의 이과대학인 김책공업대학이 북한내 인트라넷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강의에 들어간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김책공대의 다른 교사에서 배우는 대학생들은 물론 대학 졸업생,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통신수강생들과도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소개. 사이버 강의는 두가지 종류로 하나는 실시간으로 강사와 수강생들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는 ‘직결식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서버에 저장된 강의내용을 컴퓨터망에 접속한 수강생들이 받아보는 ‘비직결 방식’임. 김책공대는 서버 접속을 위해 이 대학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강비는 받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는 “지방도시나 산골마을에 사는 기술자, 학생들도 컴퓨터만 있으면 (이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며 “중전에는 김책공대의 이름난 교수들의 강의를 받고싶다는 많은 요청을 모두 접수할 수 없었지만 최신 정보기술수단의 도입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 지난 4일 김책공대를 현지지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사이버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한 이 학교 김일남 교수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 강의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소개하면서 “개발의 중심은 20대, 30대의 젊은 교직원으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후대육성을 위해 바쳤다”고 말함. 김 교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격강의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수단”이라며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에서 돈벌이가 교육사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 또 새로 건립된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은 도서 및 자료열람을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1천만건의 전자원문자료를 구축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조선신보』, 1. 17).

최고수준 김책공대 전자도서관

1월 19일 『연합뉴스』는 ‘다기능화 된 전자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김책공대 도서관의 규모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18일 『중앙통신』 인용해 보도.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하층과 지상 5층 규모인 전자도서관의 총 건평은 1만6천500여㎡이며 12개의 전자열람실과 12개의 도서열람실, 4개의 열람홀이 있다고 보도. 전자열람 수용능력은 370여 명이며 동시에 1천650여 명이 도서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함. 또 1천만 건의 원문 자료와 함께 200만 부의 장서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밝힘. 대학은 이를 위해 2년여에 걸쳐서 도서관에 있던 250만 부에 달하는 방대한 과학기술서적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 운영체계는 컴퓨터화되어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설비가 갖춰짐. 또 메모리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여러 대의 컴퓨터가 설치돼 있으며 1기가(Gbps)의 전송망이 구축. 대학의 모든 학과, 연구실, 실험실, 부서에서 어느 때든지 전자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관, 기업소, 가정에서도 국가 컴퓨터망을 통해 24시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도서관은 원격교육 체계에 의해 학생과 일반인들까지도 컴퓨터망에 접속해 대학교육은 물론 각종 형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 기능과 연구기관으로서 기능, 정보 봉사기능도 추가됨. 이외에 각종 학술토론회와 과학심의회, 국제교류, 도서전시회도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1. 19).

화력발전소 전력증산 촉구

1월 22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겨울철을 맞아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전력생

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중앙TV』를 인용해 보도. 『중앙TV』는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와 터빈, 발전기를 비롯한 생산설비 관리를 책임지고 그 운영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면서 “설비의 보수 기간을 줄이고 질을 철저히 보장해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높일 것”을 주문. 특히 발전기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모든 발전소에서는 현대적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 또 전력생산을 늘리려면 화력발전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탄광의 석탄 증산, 철도 운수부문의 원활한 석탄 수송 등을 당부. 『중앙TV』는 이어 “전력공급 계통을 현대화하고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전력공급과 소비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사용 한도를 정한 ‘카드식 적산전력계’와 절전형 콤팩트전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22).

올해 경공업에 '집중투자' 의지

1월 23일 『조선신보』는 북한이 올해 경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고 전함. 북한은 “경공업성에서 산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 현대화를 다그치고 질 높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의류와 신발, 식료 가공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밝힘. 경공업 부문에 대한 북한의 집중투자는 관련 공장의 낡은 생산시설을 교체하고 원료공급 확대를 통해 증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북한의 올해 신년 공동사설도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생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신보』는 덧붙임(『조선신보』, 1. 23).

생산품 표준화·규격화 운동

1월 23일 『조선신보』는 북한에도 규격화와 표준화 사업을 국가품질감독국이 앞장서 주도하는 등 생산 표준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도. “국가품질감독국의 일꾼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 모든 생산물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에서 적용하던 종전의 기준을 현실적 조건과 국제기준에 맞게 규격화,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특히 공작기계나 선반 등의 제품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음식에까지 표준화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어짐. 국가품질감독국은 상업성과 평양시 인민봉사총국, 조선요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우리민족 고유의 음식인 신선로, 평양랭면, 찰떡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조선신보』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해 모든 민속음식들을 국가규격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내밀고 있다”고 전함. 국가품질감독국에서는 표준화된 기준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 우선 내부 인트라넷에 '래일(내일)'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내각 주요 부처와 도 인민위원회, 주요 공장, 기업소의 규격 등록 및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국제규격을 반영한 표준화교재를 집필해 이를 교육기관과 기업소의 현직 규격 일꾼에게 e-메일로 보냄으로써 이들의 실무자질을 높여나가는 작업도 벌일 방침이라고 설명. 『조선신보』는 “국내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임(『조선신보』 1. 23).

통일부, 북한경제 7년째 플러스 성장

1월 24일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2005 북한경제 종합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해 북한경제는 농업과 철도운수 부문 등의 성장에 힘입어 1999년 이후 7년째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고 보도.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곡물생산은 양호한 기상조건과 인력 및 영농자재의 집중 투입에 힘입어 2004년보다 5.3% 증가한 454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 주민생활은 자체 곡물생산량이 증가하고 남한의 쌀 차관 지원량이 50만t으로 늘어난데다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늘고 국제기구의 지원도 17만t을 넘으면서 예년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 그러나 식량사정은 대외지원이 없으면 올 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경제관리에서는 공공배급제도의 부활을 시도하고 종합시장내 곡물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등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짐을 보인 것으로 파악. 이런 움직임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난 물가 폭등과 빈부격차 심화 등 복합적인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 숨고르기 시도'로 판단. 통일부는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 원칙 아래 운용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전력 부문에서는 애초 목표가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완공을 통해 29만kW 가량의 발전능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30여개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짓는데 그치면서 수만kW의 시설용량을 추가하는 데 머문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 다만 발전량은 강수량 증가와 발전소 개보수에 따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 광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채취 및 금속공업 부문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이에 비해 채취·금속부문은 과다한 목표설정에 따라 생산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생산이 활기를 이어나가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 석탄공업에서는 신규 탄광건설 및 확장공사 실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공업 분야의 경우 70개를 넘는 공장, 기업소가 보수 및 현대화를 완료한 가운데 생산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 통일부는 올해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외화부족과 배급제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재정 및 금융분

야의 개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통적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하면서 민족공조 논리를 내세워 남한에 대한 경제지원 요구도 강화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1. 24).

송전계통 기술관리 개선 노력

1월 24일 『연합뉴스』는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송변전관리국에서는 송전계통의 기술관리를 개선,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23일 『중앙방송』을 인용해 보도. 『중앙방송』은 “최근 관리국에서는 재령변전소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송배전 망들에 대한 계통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함으로써 송전 전압을 종전보다 1.5배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함. 방송은 이어 “관리국의 기술일꾼들은 꾸준한 연구 끝에 기존 변압기에 새로운 결손법을 받아들여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 완성했다”며 “이 기술을 전국의 모든 송·배전망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다”고 밝힘. 또 “송·배전망들에 현대적인 계량, 계측수단들을 받아들여 전력공급과 소비를 제때에 정확히 장악할 수 있는 체계도 세우고 있다”고 말함. 이와 함께 논·밭에 세워진 전주들을 정리, 송전 합리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연합뉴스』는 소개(『연합뉴스』, 1. 24).

인민대학습당 과학자 재교육 강화

1월 24일 『조선신보』는 북한 최대의 도서관이자 교육시설인 인민대학습당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탐방’ 기사에서 하루에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찾는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도서열람·대출은 물론 강의, 문답, 토론회, 음악감상 등 여러 형태의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같이 밝힘. 신문은 “대학을 졸업하고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강습’은 특히 인기가 높다”며 “참가자들은 여기에서 컴퓨터기술과 동력, 금속, 채취, 건설,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전함. 이 ‘재교육 강습’은 연중 2개월씩 4기로 나뉘 실시하며 지방에서 올라온 강습생들은 과학자여관에서 거주하며 강습에 참가하고 있다고 소개. 또 전국에서 선발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과학기술강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 경제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 문제와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이론이 다뤄진다고 설명. 이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의’에서는 대학에서 취급하지 않은 새로운 과학기술 문제와 첨단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1982년 4월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에 맞춰 평양시 중구역에 개관한 인민대학습당은 건물 연면적 10만㎡에 600여개의 방과 3천만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덧붙임 (『조선신보』 1. 24).

주민생활 개선 방안 제시

『경제연구』 2005년 겨울호는 “인민생활 향상은 현시기 선군정치를 정치사상, 군사적으로 안받침(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농업 우선, 경공업 발전, 상업망(網) 구축을 차례로 소개. 잡지는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현시기 인민생활 향상에 있어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 이어 농업증산의 핵심은 ‘종자혁명 방침’이라며 “세포공학, 유전자공학과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리 식의 다수확품종을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 잡지는 또 “경공업 공장에서 개건현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요해, 장악하고 긴급하고 절실한 대상부터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나가야 한다”면서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힘. 특히 “(이는) 인민들의 생활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심장으로 느끼고 미제와 반동들의 고립·압살 책동을 짓부수며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 몸 바쳐 나설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 생필품 공급이 체제안정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 또한 “갖가지 인민소비품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그 질이 높지 못해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의도 없다”며 선진기술 도입과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1차 소비품 품질제고’를 주장. 잡지는 다음으로 “인민생활의 직접 담당부문인 상업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지 수요에 맞는 상품 공급망 확충 및 개선을 제안. ‘상업 강화’의 방안으로는 ▲ 생필품의 상업망 집중과 수입상품 공급 ▲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 ▲ 시장 가격안정 대책 수립 ▲ 생산, 수입, 판매 단위의 긴밀한 연계 ▲ 급양편의봉사망(요식업) 서비스 제고 등을 선정(『경제연구』, 2005년 겨울호).

북한 과학기술 ‘국가 중점과제’ 수행 강조

『경제연구』 2005년 4호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며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 계획 가운데 국가 중점대상 과제 수행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잡지는 ▲ 정보, 나노기술, 생물공학 ▲ 기계, 금속, 열공학 ▲ 수학, 물리학, 화

학, 생물학 ▲ 정보화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을 과학기술 발전의 주공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이 가운데 국가적으로 힘을 쏟아 해결해야 할 절실하고 중요한 부문을 국가 중점대상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힘. 잡지는 이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려면 '경제사령부'로 불리는 내각과 과학기술 행정기관인 국가과학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또 과학기술 행정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장·기업소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지적재산에 대한 계약제도를 수립, 응용 과학연구기관들을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경제연구』, 2005년 겨울호).

2. 농업 및 식량

축산물 생산기지 설비개선 노력

12월 28일 『연합뉴스』는 북한에서 올해 북한 내 축산물 생산기지의 현대화 사업이 속속 추진됐다고 『중앙통신』을 인용해 전함. 『중앙통신』에 따르면 함경남도 근로자들은 광포오리공장(오리농장)의 생산공정을 자동화, 컴퓨터화하고 모든 생산구조를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해 생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 또 평안남도 북창오리공장과 평안북도 구성닭공장이 현대화되고 황해남도 계남목장의 제3단계 확장공사가 완공됐으며 자강도 강계오리공장과 평안북도 신의주오리공장의 1단계 현대화 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고 전함. 특히 연면적 5만여㎡ 크기로 최신 설비를 갖춘 115호 오리공장이 인민군 장병들에 의해 단기간에 건립되었다고 소개. 『중앙통신』은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축산물 생산기지들이 꾸러짐으로써 조선의 축산은 더욱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12. 28).

협동농장 노동평가 제대로 해야

1월 7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선정한 가운데 『중앙방송』은 협동농장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 『중앙방송』은 이날 논설을 통해 “분조관리제를 올바르게 실시하고 노동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물질적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농업근로자들 속

에서 자각적이고 헌신적인 노동생활 기풍을 확립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지적. 또 “협동농장들에서 원가계산을 비롯한 계산을 똑똑히 하고 타산을 바로 해서 농업생산에서 더욱 큰 경제적 실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부문 간부들이 일하는 태도와 방법을 대담하게 혁신하고 ‘실력가형의 일꾼(간부)’이 돼야 한다고 요구. 방송은 주민생활 향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긴요한 것은 ‘먹는 문제’라며 “최근 연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반동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경제적 봉쇄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초래된 어려운 식량사정은 인민들에게 적지 않은 생활상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힘. 이어 농업생산을 늘려야 공업발전에 필요한 원료를 제때에 보장해 줄 수 있고 경제 전반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다면서 농업부문에 필요한 인력, 설비, 물자를 최우선으로 무조건 공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7).

WFP, 대북 식량지원 사업 중단

1월 8일 『연합뉴스』는 WFP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북한 내 모든 식량지원사업을 중단했다고 리처드 레이건 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고 보도.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레이건 소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활동축소에 대한 북한당국의 압력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에 북한 주민 60만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지만 1월 1일 이후에는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힘. 현재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레이건 소장은 평양 이외 지역에 있던 5개 사무소와 19개 식량처리시설을 폐쇄했으며 외국인 구호요원의 수도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명으로 줄인 상태라고 덧붙임(『연합뉴스』, 1. 8).

WFP, 북한 식량지원 재개 준비

1월 14일 『연합뉴스』는 WFP가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재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WFP 관계자가 13일 말했다고 보도. 베이징의 WFP관계자 제럴드 부크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종전에 비해 크게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WFP는 식량 원조를 개발 원조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북한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약 600만명에 대한 식량 지원 사업을 중단했음. 부크는 WFP의 새로운 대북지원계획이 임신부와 어린이 등에 대한 식량 원조와 함께 경제개발원조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WFP가 이 계획을 오는 2월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주요 원조공여국에 제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14).

북한 산모 빈혈 6년간 제자리걸음

1월 19일 『연합뉴스』는 대북지원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19일 ‘2005년 북한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의 빈혈이 1998년 34.7%, 2002년 33.6%, 2004년 34.7%로 나타나 6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 단체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조사한 자료와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각종 자료, 국내외 구호단체들이 조사한 내용 등을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요약한 내용임(『연합뉴스』, 1. 19).

<2005년 북한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

- ▲ 산모빈혈 수년째 답보상태 : 산모들의 높은 빈혈은 임신 때 엽산(葉酸, 비타민 B의 일종), 철분제를 충분히 먹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북한 보건성은 철분공급 정책을 재검토해 2003년 초반까지 5천600만정의 엽산-철분 복합제를 공급했다. 유엔아동기금은 2004년부터 빈혈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들의 높은 빈혈상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의 경우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산모 가운데 가장 젊은 층(20~24세)과 늙은 층(35세 이상)이 각각 35.9%와 38.2%의 높은 빈혈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평남(61.3%)과 평북(47.8%)이 높았고, 황북(36.3%)과 양강도(32.1%)와 함북(31%), 함남(22.3%)과 평양(22.2%)과 황남(15.8%) 순이었다.
- ▲ 호전된 어린이 만성영양장애 : 1998년 3세 이하 어린이의 만성 영양장애가 70%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96년 심각한 기근시기에 태아기 및 영아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02년 같은 대상의 만성영양상태가 46%까지 감소했다. 보통 3세가 되기 전까지 어린이들의 초기 성장기에 집중적인 영양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남포시가 23.2%로 낮은 편이지만 양강도는 46.6%로 거의 2배에 달했다. 2004년 조사에서 만성영양장애는 37%로 조사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는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 ▲ 출산시 의사참여 30% 미만 : 2004년 조사에서 출산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29.6%에 불과했다. 반면 간호사나 조산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67.5%로 나타나 출산 중 합병증 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조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2년 조사에서는 의사가 출산에 참여하는 비율이 38.5%, 간호사나 조산사가 참여하는 경우 58.4%, 친구, 친족 도움 또는 아무 도움 없이 출산하는 경우가 3.1% 등이었다.

3. 대외경제

북-중, 해상 원유 공동개발 협정체결

12월 26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중앙방송』을 인용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노두철 내각 부총리와 청페이옌(曾培炎)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2월 24일 베이징에서 ‘해상에서의 원유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국정원』, 12. 26).

북-러 투자보장협정 서명

12월 27일 『연합뉴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투자보장 및 장려 협정’에 서명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을 인용해 보도. 1996년 11월 체결된 이 협정은 지난 9일 국가두마(하원)의 의결을 거쳐 14일 연방평의회(상원)의 승인을 받았다. 방송은 전함. 방송은 “이 협정은 쌍방의 역내에서 투자가들의 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임(『연합뉴스』, 12. 27).

3/4분기 북-미 교역량 급감

12월 29일 KOTRA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 29일 KOTRA에 따르면 최근 미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올해 3/4분기 미국의 대북 수출액은 415만4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86만1천 달러에 비해 77% 감소. 또한 동 기간 대북 수입액도 3천 달러로 지난해 7만7천 달러보다 크게 감소. 아울러 대북 수출품목도 콩과 전지분유, 밀, 옥수수 등에서 밀과 콩으로 단순화됨. 미국의 대북 수출이 감소한 것은 북핵문제 관련 회담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 지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KOTRA』, 12. 29).

북한에 외화전용 전자화폐 첫 등장

1월 4일 『연합뉴스』는 북한에 IC카드 방식의 외화전용 전자화폐가 처음 등장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밝힘. 이 신문은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 재일 조선인의 말을 인용,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산하 동북아시아은행이 개발한 ‘신용카드’로 불리는 전자화폐가 지난해 가을께부터 통용되고 있다고 전함. 평양 시내에 위치한 동북아시아은행 본점에서 이 카드를 1장당 2유로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를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 현재 평양

의 경우, 외화전용 식당과 백화점 등 약 20개 점포가 이 카드를 취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연합뉴스』, 1. 4).

북한 혜산-중국 창바이, 국경무역 협력 강화

1월 8일 『연합뉴스』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량강도 혜산시와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 조선족 자치현이 최근 국경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길림신문』을 인용해 보도. 『길림신문』은 이날 혜산시 인민위원회 허영웅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혜산시 무역국과 관광국, 국토환경국, 외사국 등 새해 우호축하 대표단 19명이 지난달 28~30일 창바이현을 방문했다고 전함. 리종희 창바이현 현장은 북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창바이와 혜산의 지리적 우세를 이용해 경제무역 합작을 가일층 강화하고 두나라간 우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힘. 양측은 관광도로 문제와 관광업, 경제무역 합작 의향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함(『연합뉴스』, 1. 8).

북한, 베트남과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 조인

1월 12일 국정원 인터넷판 『북한뉴스』는 『중앙방송』을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국과 월남(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규격 및 품질이사회 사이에 2006년 규격화 개량 품질관리부문 협조계획서가 1월 10일 하노이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 이어 “조인식에는 우리나라(북한)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 성원들, 상대측에서 월남 사회주의공화국 규격 및 품질이사회 관계성원들이 참가하였다”고 덧붙임(『국정원』, 1. 12).

북한, 중국기업에 탄광 개방

1월 12일 『연합뉴스』는 중국 자본의 대북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기업에 탄광을 개방하고 있다고 『흑룡강신문』을 인용해 보도. 『흑룡강신문』은 저장(浙江)성에 있는 유한회사 창금성세발전은 올해 초 200만t의 매장량을 가진 함경남도내 한 탄광과 무연탄 생산 및 수입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창금성세발전의 진소양 총경리는 지난해 12월 31일 방북, 휴업중인 이 탄광을 둘러본 뒤 탄광 지배인을 만나 회사측이 기계설비를, 탄광측이 무연탄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 창금성세발전측은 이 탄광에서 매달 2만t의 무연탄을 수입하되 가격은 한달에 한번 씩 시세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4

월 북한의 대 중국 무연탄 수출액은 2천519만 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의 788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12).

북한 채권 액면가의 5분의 1에 거래

1월 13일 『연합뉴스』는 북한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서방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액면가의 5분의 1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자유아시아방송은 13일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영국의 이그조틱스(Exotics)에 따르면 최근 들어(이 채권이 1달러 당) 20~21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거래량은 많지 않고 거래도 아주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이 방송은 그동안 10센트대에서 거래되던 북한 채권이 20센트선으로 오른 것은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원칙적인 핵포기를 합의한 9·19공동성명 때문인 것으로 분석. 북한은 1970년대 초 오일쇼크 등으로 100여개의 서방은행으로부터 14억 달러를 빌렸으나 북한이 갚지 못하자 서방 채권단은 1987년 북한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 이어 일본과 유럽의 은행은 1994년부터 받을 돈의 절반 가량을 채권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으며 달러당 10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던 북한 채권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식량 위기로 곧 붕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 때 1달러당 60센트 가까이 치솟기도 했음.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면 채권 수요도 많아져 가격이 오르지만 생존이 연장되는 상황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정권이 안정을 보임에 따라 북한 채권 가격도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13).

북한상품 종합판매장 홍콩에 개장

1월 18일 『연합뉴스』는 북한 상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시장인 해외에서 처음으로 홍콩에 들어섰다고 전함. ‘조선 명품 전시장’은 17일 홍콩 구룡반도의 홍합 보석상가에서 개장식을 갖고 개성인삼, 건강식품, 영화 DVD, 음악 CD, 우표, 기념주화, 예술품 등 북한제품에 대한 판매에 나섬. 북한이 생산한 상품을 종합 판매하는 곳은 해외에선 이곳이 유일함. 월북 작가 김기만 화백을 비롯한 북측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이 그린 인물화 및 풍경화와 만수산 창작사가 제작한 보석화, 수예품, 병풍, 부채 등도 전시 판매. 판매점을 개설한 한국교민 기업인 고선물산은 이들 상품을 제조하는 목란비디오, 석암무역, 조선중앙은행, 조선우표사 등 북한 기업 및 당국과 일일이 별도 계약을 체결, 홍콩으로 수입하는 절차를 거침. 한국, 중국 관광객과 홍콩 현

지인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는 이 판매점은 앞으로 술, 담배, 가죽제품 등으로 판매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 고선물산 장주성 사장은 "북한에서도 국제적으로 통할만한 우수한 품질의 상품들이 상당수 생산된다"며 "복잡한 정치·외교 문제를 떠나 북한 기업에게 해외 판로를 확보해주고 진귀한 북한 상품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전시장을 개설하게 됐다"고 전함(『연합뉴스』, 1. 18).

중국, 북한 우라늄광 개발에 눈독

1월 19일 『연합뉴스』는 중국이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풍부한 우라늄광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을 인용해 보도. 이 신문은 북·중 관계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도 에너지 자원으로 우라늄광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고집하는 이유로 "매장량이 풍부한 우라늄을 에너지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함.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중국과 우라늄광 공동개발에 나설 경우 '비핵화'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일제시절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주산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특히 현재의 황해남도 백천과 평안북도 삭주 등지에는 고순도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연합뉴스』, 1. 19).

중국, 북-러 잇는 관광 상품 출시

1월 24일 『연합뉴스』는 중국 지린(吉林)성이 최근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여행 상품 4종을 내놨다고 보도. 24일 『동북저널』에 따르면 상품은 옌지(延吉)-훈춘(琿春)-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관광하는 코스를 비롯해 옌지-훈춘-북한의 나진·선봉 코스, 옌지-룽징(龍井)-북한의 회령과 청진·칠보산 코스, 옌지-투먼(圖們)-북한의 온성 코스 등임. 지린성은 "4종의 여행 상품은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둘러 볼 수 있는 여행상품"이라고 홍보. 지린성은 또 "특히 훈춘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를 달리면 나오는 방천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3국의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동해와 북한-러시아 국경철도를 볼 수 있어 좋다"고 추천. 지린성에 따르면 나진·선봉 지역은 혁명 유적지, 북한 민속촌, 나진 향만, 비파섬 등을 볼 수 있고, 회령-청진-칠보산 코스는 청진항의 전경, 동해 폭포, 칠보산, 개심사, 승선대 등을 관광. 세계 부동항 중의 하나인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은 2차 세계대전의 잠수함, 동정(東正)교당, 황금 해수욕장 등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짜여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24).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북한 정춘 흑연 2006년 2월 반입

12월 25일 『매일경제』는 2006년 2월 남북이 공동 개발해 채굴한 북한산 흑연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고 보도.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은 최근 “분단 후 첫 남북 공동 북한 광산개발인 정춘 흑연광산이 2006년 2월 시설 준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흑연광물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힘. 이에 따라 2006년 2월이면 국내에 북한산 흑연이 반입 예정. 2006년 초 생산에 들어갈 정춘 흑연광산은 황해남도 연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10월 우리 정부에서 첫 광산분야 남북경협사업으로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 정춘광산 개발을 위해 우리측 광진공과 북한 삼천리총회사(현 명지총회사)가 50대 50으로 합작해 북한에 2002년 투자협정을 맺고 ‘정춘천연인상흑연합작회사’를 설립. 광진공은 지분 50%, 60억3400만원을 채광·운반·선광시설에 현물로, 북한은 부존광물과 인력으로 나머지 지분을 출자. 박 사장은 “최근 북한에 다녀왔는데 북한에서 약속을 지켜 2006년 2월 정춘 흑연 광산 첫 생산품이 나오게 됐다”며 “(정춘 흑연광산 기준으로)매년 3000t씩 15년 동안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또 “시설 준공식을 위해 남측 인사들이 육로로 정춘을 다녀올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임(『매일경제』, 12. 25).

개성서 경제협력상담회 개최

12월 26일 『연합뉴스』는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연합회의 공동으로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에서 경제협력 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고 보도.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5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석한 이날 상담회에서는 중앙회가 2단계 개성공단 분양을 맡아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협의회측은 설명. 상담회에서는 또 북한 기업과 개성공단내 남한 기업이 참가하는 ‘한민족 경제협력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과 남한의 유희어선을 북한이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협의회는 밝힘(『연합뉴스』, 12. 26).

2005년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공개

12월 28일 『중앙일보』는 2005년 남북협력기금이 남북 접촉과 대북 지원 전반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보도.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협력기금 지

출 현황에 따르면 1~11월 말 총 3,406억여원이 사용되었다고 보도. 이 중 1,573억여원은 대북 비료 지원과 식량 차관 등의 쌀 지원에 투입돼 북한의 농업 유지와 곡물 수급 등에 필수적인 '생존성 지원'으로 쓰였음. 정부가 긴장 완화와 교류의 상징적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강산 관광 지원, 개성공단 시설 확충에도 각각 22억여원, 106억여원이 지출. 각각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 상봉, 면회소 건설 등에 120억여원이 사용되었다고 『중앙일보』는 설명(『중앙일보』, 12. 28).

남북 과학협력 등에 514억 투입

12월 28일 『연합뉴스』는 내년 한해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과 국제공동연구, 국제화 기반 조성,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기반 구축에 모두 5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도. 과학기술부는 최근 해외 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의 생산성 향상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06년도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28일 공고했음. 과기부는 우선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에 모두 6억5천만원을 투입,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 및 가동에 대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12. 28).

개성공단 직통전화 개통

12월 28일 『경향신문』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을 잇는 직통전화가 28일 개통됐다고 보도. 정보통신부와 KT는 28일 북한 개성공단내 KT지사에서 남북한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0회선 규모의 개성공단 전화개통식을 개최. 1945년 8월 구소련에 의해 서울-해주간 통신망이 단절된 지 60년 만에 복구. 그동안 개성공단과 남측간 전화통화는 일본을 경유한 국제전화 방식을 이용해 요금이 분당 2.3달러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입주업체들은 분당 40센트 수준의 전화가 가능해졌음. 개성공단에 서 남쪽으로 전화를 걸 경우 '089-국내번호'를, 남쪽에서 개성공단으로 전화를 걸 경우는 "001-8585-0000"를 사용하면 됨. KT는 내년 하반기 중 공단 내 3,000평 규모의 부지에 통신센터를 착공한 뒤 1만회선 규모로 회선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경향신문』은 덧붙임(『경향신문』, 12. 28).

정부, 북한의 영·유아 지원위해 WHO에 100억 신탁

1월 2일 『한국일보』는 정부가 2월 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1,000만 달러(약 100억원) 규모의 대북 신탁기금을 만들어 북한 내 영·유아 및 산모 지원에 본격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생아에 대한 결핵, 소아마비 등 5대 백신접종을 돕고 북한 내 지역별 모자 건강관리시설 운영을 지원할 예정. 북한 내 5세 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98만명이 대상.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국제기구, 민간단체, 정부의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사용할 방침이라고 『한국일보』는 덧붙임(『한국일보』, 1. 2).

정부, 개성에 석탄 6만t 공급

1월 3일 『한국경제』는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60억원 상당의 석탄 6만t을 개성에 공급한다고 보도. 정부 당국자는 3일 “지난해 12월 초 석탄 수송을 시작했으며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힘. 개성시내 가정들은 이미 공급한 1만t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정부 당국자는 석탄 지원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월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국경제』, 1. 3).

남북합작 '경기-평양미' 첫 반입

1월 5일 『연합뉴스』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북한의 농장에서 생산한 쌀이 인천항을 통해 처음으로 남쪽에 반입됐다고 보도.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북한과 공동으로 평양시 인근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에서 수확한 쌀 1t을 인천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밝힘. 경기도의 영농기술과 농기구,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 생산했다는 뜻에서 '경기-평양미'로 명명된 이 쌀은 남과 북의 첫 합작 쌀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쌀이 반입된 것은 1984년 서울 대홍수 때 북한산 쌀이 구호용으로 온 이후 22년 만임. 이번에 들여온 쌀은 시범농지 3ha(9천평)에서 수확한 14.8t 중 일부로, 남한의 오대벼 품종이며 남포~인천 정기선박 포춘호에 실려 지난 3일 오후 인천항에 도착. 도는 이날 컨테이너 하역, 식물검역, 세관통과, 출고 등의 절차를 거쳐 2차 도정을 한 뒤 2kg 단위로 소포장해 실항민단체, 관계부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 남북 공동 벼재배 사업은 지난해 4월 경기도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기술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기도의 농업전문가가 지난해 5월부터 벼씨, 농기자재를 가지고 5차례 평양 시범농장을 방문, 경기도 농법에 따라 벼씨를 파종하고 병충해 방제, 벼 생육관리 등을 해왔다고 설명. 추수 결과 시범농장에서는 10a당 494kg이 생산돼 남한 농가 평균 생산량 500kg에는 다소 못미쳤지만 북한의 평균 수확량 270kg보다는 224kg이나 많았음. 도는 남북합작 첫 벼농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됐고 북측에서 증산계획을 요청해옴에 따라 올해 사업면적을 100ha로 확대할 계획. 도 관계

자는 “남과 북이 농업분야에서 첫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 호혜와 협력의 원칙, 인프라 지원의 원칙, 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 5).

남북한 천연기념물 CD 제작

1월 6일 『연합뉴스』는 남북한 천연기념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D가 제작돼 조만간 배포될 예정이라고 보도. 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의 국가과학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CIAST) 등과 공동으로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700여종을 담은 CD를 제작했음. 이 CD에는 백두산 삼지연 기슭에 서식하는 조선범(북한 천연기념물 제357호)을 비롯해 영특하고 재빠른 풍산개(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성산 미루나무(북한 천연기념물 제12호) 등이 포함. 이밖에 개성 크낙새, 세계적인 희귀종 백암 쥐토끼, 천년에 한번 나온다는 들연변이 소나무인 함흥 반송, 와갈봉 조선범, 용림 큰곰, 관모봉 큰곰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 특히 기후적으로 남한에는 분포하지 않는 ‘삼지연 누렁이’라는 순록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해당 천연기념물은 사진과 함께 해설, 동영상도 함께 곁들여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음. 북한 천연기념물은 북한의 기술진이 직접 자체 데이터와 기술력을 동원해 제작. KISTI와 북한 CIAST는 최초의 남북 과학기술정보 연구기관 합작 프로젝트인 ‘백두산의 자연’을 개발한 바 있으며 남북한 천연기념물 사이트(<http://nm.nktech.net>)를 지난해 2월 개설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1. 6).

인천항 남북교역 최대 기록

1월 10일 『연합뉴스』는 인천항이 지난해 남북교역에서 가장 많은 반출입량을 기록한 것으로 전함. 10일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천항을 통한 남북교역 반출액은 전년도보다 53% 늘어난 3억8천111만 달러를 기록해 남북교역이 이뤄지는 국내 13개 항구 중 가장 높음. 울산항이 1억6천475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고, 여수항(3억71만 달러)과 군산항(1억28만 달러) 순임. 인천항은 반입액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2억8천462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3% 증가. 군산항은 전년에 비해 무려 277% 증가한 32만 달러를, 울산항은 절반 가량 줄어든 20만 달러를 각각 기록.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천항이 지리적 여건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성 등으로 남

북교역에서의 중심 항구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개성공단 사업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교역량을 쉽게 점치기 어렵다”고 말함(『연합뉴스』, 1. 10).

잠사회, 평양에 잠업단지 조성 추진

1월 11일 『연합뉴스』는 사단법인 대한잠사회가 평양 인근에 잠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보도. 대한잠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개성에서 열린 남북공업과학 심포지엄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산하 새별총회사 간부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힘. 심포지엄에는 남한 농촌진흥청과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와 농업전공 대학교수, 북한에서 민경련과 농업과학원 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해 남북농업교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 이 관계자는 “내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잠업단지 건설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북한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미뤄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함.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양과 개성 일대 뽕나무 단지를 기반으로 삼아 양잠(養蠶)과 제사(製絲), 견직물 생산 등 초보적 단계는 북한에서, 염색과 의류제조는 남한에서 담당하는 분업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파악(『연합뉴스』, 1. 11).

경남, 북한과 농업협력 합의각서 체결

1월 12일 『연합뉴스』는 경남도가 북한과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 도는 지난 11일 북한 개성 자남산 호텔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농업협력사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힘. 기본합의서는 이주영 정무부지사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정덕기 부회장, 주관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용선 사무총장이, 부속합의서는 경남도 강성준 농수산국장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리순일 참사가 각각 체결. 합의서에서 도는 평양시 강남군에 벼육묘공장인 개방식 육묘시설과 남새(채소)온실을 건설하고 북측이 제공하는 벼묘종 및 각종 채소 육묘를 통해 묘종을 생산하며 육묘기술과 설비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 벼육묘공장은 600평, 채소온실은 2000평 규모로 지을 예정이며 도는 벼 이앙기 250~300대도 공급. 양측은 또 북측의 낮은 기온을 이용해 무바이러스 딸기묘를 생산, 남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상호이익을 찾는 남북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12).

남북 19~20일 개성서 경추위 접촉

1월 12일 『연합뉴스』는 남북한이 19~20일 개성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접촉을 갖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 남측은 또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다음 달 7~9일 금강산에서 열 것을 북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전함.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레브리핑을 갖고 “경협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갖기로 하고 오늘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차관은 “이번 제안은 북측이 10일 위원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남북이 19~20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위원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고 전함. 그는 이번 위원급 접촉에서는 경공업 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등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 이 차관은 또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7차 적십자회담 2월 개최에 합의한 만큼 오늘 북측에 다음 달 7~9일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 차관은 이 밖에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들을 연쇄·개별 면담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애로사항을 파악·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그는 특히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경협을 희망하는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지만 여전히 장애가 많이 남아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고 북측에 개선할 요인이 있다면 취합해 경협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함. 이 차관은 “지난 해 남북관계발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올해는 대북정책에 내실을 기해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이 차관은 이와 별도로 북미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의 돈세탁 혐의를 파악했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함(『연합뉴스』, 1. 12).

평양 시범농장 30만평 확대 합의

1월 13일 『연합뉴스』는 경기도가 올해 북한 벼농사 시범농장을 30만평(100ha)으

로 확대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보도.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실무대표단은 12일 개성에서 북한 대표단(민족화해협의회)과 실무회담을 갖고 벼농사 시범농장을 지난해 9천평에서 올해는 30만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올해 남북합작 벼농사가 진행될 시범농장은 북한 농업과학원 시험포장을 이용했던 지난해(평양시 룡성구역)와는 달리 농지가 많은 평양시 외곽 강남군으로 선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1. 13).

북한, 남한출판사에 출판권 양도

1월 16일 『연합뉴스』는 북측과 저작권 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지난달 30~31일 개성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 등과 실무 협의를 벌여 북측 작가 및 저작권자 34명으로부터 출판물 47편에 대한 출판권을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측에서 출판권을 양도받은 작품은 서사소설 ‘서산대사(최명익 지음)’, 남측 방송사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의 원작소설(림종상 각색), 의학도서 ‘장수의 비결(강영철 등 지음)’, 동화 ‘청동항아리’와 ‘작아지지 않는 연필’ 등 총 47편에 달함. 재단측은 이날 협상에서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에서 넘겨받은 작가 및 저작권자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근거로 ‘사계절’, ‘자음과 모음’, ‘효리원’ 등 남측 출판사 4곳과 북측 출판물 47편에 대한 출판권 양도 계약을 각각 체결. 이번 실무협약에는 남측에서는 재단 산하 남북저작권센터 관계자 등 6명이, 북측에서는 장철순 저작권사무국 부국장과 이금철 민족화해협의회 부장, 출판지도국 관계자 등 각각 참석.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은 제작년 6월 내각 산하에 설립된 기구로 북측의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및 공증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 기관이라고 『연합뉴스』는 설명. 재단측은 출판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북측에 10%의 인세를 지급하되 삽화가 들어가는 동화의 경우 삽화 작가에게도 총 인세의 40%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재단측은 밝힘. 또 북측 저작권 사무국으로부터 북측에서 발간된 출판물에 대한 사전협상 권한도 양도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재단 실장은 “남측 저작권 대행기관이 남측 출판사와 미리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후 북측에서 출판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앞으로 출판권 양도 협상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1. 16).

통일부, 북한 투자 50억까지 손실보조 한도 높여

1월 18일 『한국경제』는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고 보도. 통일부는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에 따르는 위험

을 줄일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한도가 100~150% 상향 조정되었다고 발표. 손실보조제도는 대북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 개정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를 대북 투자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액이 45억원인 점을 감안, 종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50% 늘렸고 남북 교역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0% 증액했다고 『한국경제』는 설명. 또 손실보조 신청 요건의 하나인 해당 사업에 종사한 경력도 종전의 3년 이상에서 이번에 1년 이상으로 완화했음. 통일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사회문화, 인도지원 등 분야별로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결정 및 사업평가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키로 함. 이 밖에 기금지원에 관한 민원 처리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한국경제』는 덧붙였다(『한국경제』, 1. 18).

올해 남북협력기금 98% 증액

1월 19일 『연합뉴스』는 올해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남북협력기금은 2조4천79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98% 늘어났다고 전함. 통일부는 19일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가 2조4천791억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1조2천266억원 증가했다고 밝힘. 이 가운데 교류·협력사업과 인도지원 사업 등에 투입될 남북협력계정은 지난 해에 비해 74% 늘어난 1조2천289억원, 경수로 사업에 따른 공사비 미지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경수로계정은 129% 증가한 1조2천502억원으로 책정. 특히 올해 처음으로 남북협력계정이 1조원을 넘어서 대북 경험사업 등이 활성화될 전망. 통일부는 “기금이 확충됨에 따라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남북협력기금 지원 활성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지난 해는 남북협력계정에서 6천534억원, 경수로계정에서 3천884억원 등 총 1조418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 주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북 쌀지원 1천985억원, 비료지원 1천263억원, 철도·도로 1천978억원, 경험지원 635억원, 기타 인도적 지원 543억원, 경수로 227억원 등이었다고 전함(『연합뉴스』, 1. 19).

현대아산, 개성공단 관광 패키지 개발

1월 19일 『문화일보』는 현대아산이 개성관광을 개성공단과 연계해 통합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현대아산에 따르면 개성 본 관광이 올

해 안에 이뤄지더라도 숙박시설 미비로 당일 코스에 그치겠지만, 개성공단 조성작업이 활기를 띠면서 향후 개성 명승지 관광과 공단내 숙박시설을 연계해 2박3일 관광코스를 만든다는 계획을 마련. 현대아산 관계자는 “당장은 당일코스 관광에 만족해야겠지만 2,000만평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개성공단 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면 2박3일 관광코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개성공단 내 근린생활시설에는 향후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1단계로 올해에는 2,000평 규모로 100실 규모의 숙소와 주유소, 충전소 등이 확충될 예정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함(『문화일보』, 1. 19).

남북협력기금으로 북측 백두산도로 부실공사

1월 21일 『서울경제』는 정부가 지난해 백두산 관광 도로 및 활주로 포장을 위해 8,000t(50억원 상당)의 도로 포장용 피치를 제공했으나 북측의 부실 공사로 이중 20억원을 날리게 됐다고 보도. 한국관광공사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백두산도로 포장과 삼지연 공항 활주로 보수공사를 위해 피치 8,000t을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48억원을 지원. 북측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백두산 시범관광 협상에서 ‘활주로 포장공사에 일부 결함이 발생해 삼지연 공항 활주로 전체를 재포장해야겠다’며 피치 8,000t을 요구. 북측은 추가로 제공받은 피치 8,000t 중 3,500t을 활주로에 사용하고 나머지 4,500t은 비포장도로인 백두산 삼거리 인근에 이용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북측의 부실 공사로 지난해에 이어 피치 8,000t을 추가 제공함에 따라 남측 기술인력을 현지에 상주시켜 기술 자문 및 현장 감독을 실시하기로 함. 북측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활주와 도로 공사를 재개, 2달 동안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경제』는 덧붙임(『서울경제』, 1. 21).

남북교역 작년 10억달러 돌파

1월 22일 『무역협회』는 지난해 남북교역이 사상 최초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 무역협회가 발표한 ‘2005년도 남북교역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은 전년 대비 51.5% 증가한 10억5천만달러를 기록. 남북 교역액 중 대남 반입이 3억4천만달러, 대북 반출이 7억1천만달러임. 남북교역 10억달러 시대 진입은 개성공단 개발의 진전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2004년 개성공단 개발 관련 교역은 4천169만달러로 전체 교역금액의 6.0%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16.7%(1억7천674만달러)를 기록. 이에 따라 지난해 남북교역액 중 민간 교역 중심의 ‘상업적 거래

‘와 정부 지원 중심의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65대 35로 2000년대 들어 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또 상업적 거래 중 교역부문과 협력사업부문(기업의 대북투자)의 비중이 각각 61 대 39로 협력사업의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남북교역이 종전의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일변도에서 탈피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지난해 남북교역이 한국의 전체 무역에 차지한 비중은 0.19%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 무역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생산활동이 더 활발해져 남북교역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개성공단 협력사업 뿐 아니라 대북교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남한 기업인의 원활한 북한 방문, 북한측과의 신속한 연락, 남북 육상운송 시스템 구축 등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무역협회』, 1. 22).

경의선 도로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1월 23일 『세계일보』는 남북 교류협력의 관문인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출입사무소(CIQ)가 청사 신축을 마치고 23일과 26일 각각 본격 가동된다고 보도.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2004년 9월 착공한 경의선 도로 출입시설 신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시 CIQ 시설에서 이전해 오늘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힘. 그는 “동해선 도로 CIQ의 공사도 끝나 26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철도 CIQ의 건설 상황에 대해서는 “3~4월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세계일보』, 1.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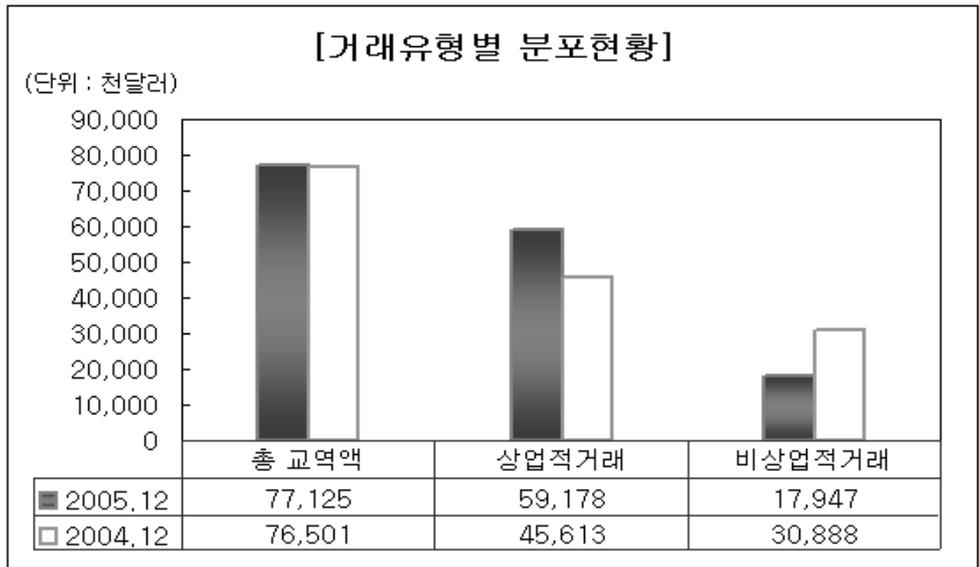
우리은행, 남북출입국사무소 환전소 개점

1월 23일 『연합뉴스』는 23일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국사무소 신청사(CIQ)에 우리은행 환전소가 개점되고, 오는 27일에는 강원도 고성 CIQ에도 환전소가 개점된다고 밝힘. 지난해 제12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때 환전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중순 통일부에 입점 제안을 제출, 이달 12일 입점은행으로 최종 선정. 파주 환전소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출입 업무 및 방북고객 환전 서비스를, 고성 환전소는 금강산 방문 고객 환전 및 자동화기기(ATM 1대)를 통한 현금 입출, 수납,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1. 23).

통일부, 12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1월 『통일부』는 8월중 남북교역액이 77,125천달러로 전년 동월 76,501천달러 대비 0.8% 증가했으며 반입은 32,230천달러, 반출은 44,895천달러에 이른다고 발표. 이중

거래비중은 상업적 거래가 59,178천달러로 76.7%, 비상업적 거래가 17,947천달러로 23.3%를 차지.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 37.9%, 섬유류 20.2%, 광산물 12.9%, 철강·금속제품 11.6%, 전자전기제품 6% 등이며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29.6%, 섬유류 16.6%, 기계류 15.2%, 철강·금속제품 12.8%, 화학공업제품 9.7% 등이라고 밝힘(『통일부』, 1).



5. 북한·주변국가 관계

북-일, 수교협상 재개 및 분과위원회 개최 합의

12월 25일 『연합뉴스』는 3년 넘게 중단됐던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이 내년 1월 말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 납치문제와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다룬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국교정상화 협상과 동시에 가동될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 북한과 일본은 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정부간 협의 이틀째 회의에서 일본이 제의한 ▲납치 ▲핵 및 미사일 ▲국교정상화 등 현안별 3개 분과위원회를 내년 1월 말 동시에 가동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대표단이 밝힘. 일본측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북한측이 “납치를 포함한 미해결 문제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이로써 2002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1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북·일 국교정상화협

상이 3년 3개월여만에 재개된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과 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분야별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일본은 북한이 분과위 설치에 동의한 것은 “납치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야위가 가동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연합뉴스』, 12. 25).

KEDO 대북 경수로사업 일지

1월 8일 『연합뉴스』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이 8일 함경남도 공사현장에 있던 인력이 전원 철수하면서 공사를 3분의1 가량 마친 상황에서 사실상 끝났다고 보도. 다음은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1994년 제네바합의부터 이날 철수에 이르기까지 경수로사업의 주요 일지임(『연합뉴스』, 1. 8).

- ▲ 1994. 10. 21 :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합의) 서명, 북한의 핵시설 동결 대신 2003년까지 100만kW급 경수로 2기 제공
- ▲ 1995. 3. 9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 개최, 협정에 ‘한국형’ 명기
- ▲ 1995. 8. 14~25 : 제1차 KEDO 부지조사단 신포지역 현장조사차 방북
- ▲ 1995. 12. 15 : KEDO-북한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 1997. 7. 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 ▲ 1997. 8. 4 : 사업부지와 한전본사 간 통신 개통
- ▲ 1997. 8. 19 : 부지정지공사 착공식(8.18 한나라호 81명 태우고 동해항 출항)
- ▲ 1998. 11. 9 : KEDO,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 ▲ 1999. 5. 3 : KEDO-일본 차관공여협정 서명
- ▲ 1999. 7. 2 : KEDO-한국 차관공여협정 서명
- ▲ 1999. 12. 15 : KEDO-한국전력 주계약(TKC) 서명
- ▲ 2000. 10. 24 : 속초-양화 간 객화선 정기운항 첫 출항
- ▲ 2001. 8. 31 : 부지 정지공사 완료
- ▲ 2001. 9. 3 : 원전 본관 기초굴착 착수
- ▲ 2002. 8. 3 : 제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착수
- ▲ 2002. 10. 16 : 미국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계획 시인”
- ▲ 2002. 11. 14 : KEDO, 대북 중유공급 중단.경수로사업 재검토 결정
- ▲ 2003. 1. 10 : 북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선언
- ▲ 2003. 11. 6 : 북한, 부지현장 장비반출금지 및 보상요구 발표
- ▲ 2003. 11. 21 : KEDO, 경수로사업 1년간(2003.12~2004.11) 중단 결정

- ▲ 2004. 12. 17 : 건설현장 우즈베키스탄 인력 철수
- ▲ 2004. 2. 29 : 건설현장 북한 인력 철수
- ▲ 2005. 7. 12 : 한국, 경수로사업 종료 대신 200만kW대북 직접송전 제안 발표
- ▲ 2004. 11. 26 : KEDO, 경수로사업 추가로 1년간(2004.12~2005.11) 중단 결정
- ▲ 2005. 11. 22 : KEDO집행이사회, 사업종료 방안 논의
- ▲ 2005. 12. 8 : 북한, KEDO방북단에 사업 종료시 인력잔류 불필요 입장 표시
- ▲ 2005. 1. 8 : 금호부지 현장 잔류인력 전원(57명) 철수

북-중 최고지도자급 상호방문 일지

1월 10일 『연합뉴스』는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맞아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방문 일지를 최근부터 순으로 정리해서 보도. 일지는 다음과 같음(『연합뉴스』 1. 10).

- ▲ 2006. 1. 9 :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 방중
- ▲ 2005. 10 : 후진타오 중국 주석 방북(예정)
- ▲ 2005. 3 : 박봉주 내각 총리 방중
- ▲ 2004. 10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 2004. 4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 2003. 10 :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 ▲ 2001. 9 :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 방북
- ▲ 2001. 1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 2000. 5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 1999. 6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WHO, 북한 결핵퇴치에 110만달러 지원

1월 12일 『연합뉴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북한의 결핵퇴치사업을 위해 11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 아이길 소렌슨 WHO 평양사무소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WHO가 지원하는 65만 달러는 결핵 약을 구입하는 데 쓰이고, 캐나다 국제개발청이 지원하는 45만 달러는 실험실과 장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소렌슨 대표는 “결핵균 검사시설을 도입해 결핵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북한의 결핵환자 치료율이 적어도 85%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그는 북한의 결핵실태와 관련, “북한은 결핵 발병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북한 주민 10만명당 210명이 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소렌슨 대표는 이어 “아시아권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결핵통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편”이라며 “국제사회로부터 의료지원이 이루어지고 북한사회가 조직화되어 있어 결핵통제사업

이 잘 수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 정부는 올해 WHO에 1천만 달러 규모의 대북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신생아에 대한 BCG(결핵), 폴리오(소아마비) 등 5대 백신 접종을 돕고 북한 내 지역별 모자 건강관리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1. 12).

북한, 호주에 관계복원 요청

1월 18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호주에 산업과 농업전문가들을 위한 호주내 연수 프로그램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핵문제를 둘러싸고 냉각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주신문』을 인용해 보도. 북한 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호주내 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2002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단됐는데 북한은 가뭄과 관리 잘못으로 농업분야가 황폐해졌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낡고 비효율적이어서 중앙통제방식의 경제가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설명. 『호주신문』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호주 의회에 양국 외교관계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왔다면서 북한은 이 청원서에서 북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이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함. 이 청원서는 "북한은 농업과 공업 분야의 과학적 연구 작업을 호주와 더 많이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특히 핵문제 때문에 호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공업과 농업 분야의 전문가 교환과 공동 연구 작업이 재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힘. 청원서는 이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평화적 목적의 핵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 이와 관련, 호주 외교부의 한 대변인은 양국 관계 확대 방안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철폐 문제에 대해 먼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한다는 게 호주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힘(『연합뉴스』, 1. 18).

김정일 방중 결산 북한발표문 요지

1월 18일 『연합뉴스』는 『중앙통신』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에 의해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발표. 『중앙통신』 발표문은 "양국 정상이 상봉과 회담을 베이징에서 진행해 쌍방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할 데 대하여 일치하게 동의했다"고 전함. 특히 발표문에는 김 위원장이 후 주석에게 '6자회담 난관' 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며 후 주석은 완곡하게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다음은 『중앙통신』 발표문 요지임(『연합뉴스』, 1. 18).

< 김정일 방중 「중앙통신」 발표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박남기, 리광호 노동당 중앙위 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의 수행하에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김 국방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하고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했다. 김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상봉과 회담을 진행했다. 상봉과 회담에서 중국측에서는 쑹칭홍(曾慶紅) 부주석과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배석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회담에서 현대화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중국의 중부와 남부 지방을 방문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점을 보았다. 후 주석은 음력 설에 즈음해 중국공산당을 대표해 김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들에게 새해인사를 했다. 특히 후 주석은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추동하여 깊이 있게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으며 경제무역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호혜적인 협조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중·조 선린우호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후 주석의 초청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면서 중국이 이룩한 발전은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 등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노선과 방침, 정책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쌍방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이룩된 적극적인 성과들을 충분히 긍정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에 대해서와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핵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여할 것에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제4차 6자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6자회담 과정에 조성된 난관에 대해 말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6자회담의 난관을 극복하고 회담을 계속 추진시키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서 중국 동지들과 같이 노력할 데 대해 지적했다. 조선반도 핵문제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측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6자 회담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대화를 통해 해당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후 주석은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을 포함한 각 유관측과 공동으로 노력해 6자회담 과정이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를 마친 후 김 국방위원장은 후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를 참관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환영해 후 주석이 이날(17일) 저녁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최진수 주중 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초대됐다. 중국측에서는 자칭린(賈慶林)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쑹칭홍(曾慶紅) 중국 부주석,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우이(吳儀) 국무원 부총리,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회는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김 국방위원장과 후 주석이 연설을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도 상봉하고 담화를 나눴다. 우방귀 위원장은 중조 선린우호협조의 내용을 부단히 풍부히 함으로써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오르도록 전면적으로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에게 중국의 경제 정세와 제11차 5개년 계획의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김 국방위원장을 환영해 오찬을 차렸다. 오찬에는 우관정(吳官正)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 뤼간(羅幹) 당 정치국 상무위원, 쑹페이옌(曾培炎) 부총리가 참가했다. 귀국하는 김 국방위원장을 베이징역에서 자칭린 정협 주석, 류치 베이징시 당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지도간부들이 배웅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했으며 중국의 당과 정부 간부들의 극진한 환대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했다.

6자회담 북·중·미 수석대표 베이징서 회동

1월 18일 『연합뉴스』는 6자회담의 북한, 중국, 미국측 수석대표가 18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 이날 회동은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 교부 부부장의 초청에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보도.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이날 낮 승용차편으로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으로 들어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 부부장과 3시간 가까이 회동한 것으로 알려짐. 현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들 3자가 점심식사도 함께 하면서 뒤 북-미, 미-중이 양자회담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측이 중재하는 형태의 3자대화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번 회동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 방문을 마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타결책이 모색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1. 18).

북일 양자회담 내달 5일 재개

1월 21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을 내달 5일 베이징(北京)에서 재개한다고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 양국은 내달 5일이 시작되는 주에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문제 등 양국간 주요쟁점을 토의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양측은 지난해 12월 국교정상화와 북핵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 3가지 현안문제를 각각 3개의 별개 회담을 열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1. 21).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